한국디자인DNA 심화연구

정자문화

심화연구자 남 호 현(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CONTENTS

제1부 연구 개요

제2부 분석

1장 사용자들의 디자인 의식과 태도분석
1절 정자문화에 부여된 '우리' 의 인간성에 관하여
2절 정자문화를 통해 본 '우리' 의 미의식에 관하여

2장 디자인의 풍토적, 사회적 맥락 분석
1절 정자문화에 작용한 풍토적 배경
2절 정자문화에 영향을 미친 시대적, 문화적 배경

3장 개념의 시각화/도구화 과정 분석
1절 의미와 가치를 구체화하는 조형행위

제3부 종합

1장 정자문화에 드러난 창조적 사고방식
1절 우리의 디자인 개념과 제작자의 조형의식
2절 우리의 조형가치와 현대적으로 개선, 발전시켜야 할 점

2장 정자문화를 현대적 디자인 가치로 표현한 디자인 사례
1절 대표적인 전통 정자건축 사례
2절 현대의 시대가치로 재해석된 현대건축 사례
3절 정자문화가 현대디자인에 발현되기 위한 디자인 요소

제 1부
연구개요

연구내용 및 결론

우리의 정자문화에는 신선사상(神仙思想) 혹은 도가사상(道家思想), 음양사상, 유가사상(儒家思想), 특히 장수(藏修)와 유식(遊息)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유교의 사상적 배경이 담겨 있다. 특히 산수화나 문학작품 에 있어서 정자는 마치 속세에서 떠난 곳, 자연의 순수함이 존재하는 곳에 입지하여 이상향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자에 앉으면 세속을 떠난 절경이거나 인간 세상이 아닌 선경(仙境)이 시작되는 지점으로 느껴지고 있는 것이다. 정자의 건축공간은 조용하고 비어 있는 듯한 공간, 크고 넓으면서도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는 한가로움은 한국미의 조형언어를 이해하는데 적절한 개념이다. 이러한 조형 개념은 빈듯하면서도 가득 찬 느낌 쓸데없이 공간을 나누고 많은 것으로 채우려는 의식을 멀리하게 된다. 또한 정자는 여름의 시원한 바람과 함께, 겨울의 따뜻한 겨울햇빛도 함께 느껴야 한다. 정자는 기후 요소를 활용하여 인간에게 얼마나 이로운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깨닫고 이것이 조형적 아름다움까지 만든다는 것을 깨닫는 장소로 이해해야 한다. 그밖에 화폭에 정자가 세워진 곳에는 절개를 상징하는 소나무가 있고, 학이 있고 연꽃이 있다. 이러한 식생은 정자를 사용하는 이들의 심성을 파악할 수 있는바 한마디로 말하면 선비의 절개를 상징하는 것들이었다.

정자는 세속을 벗어난 한적한 곳에 은거하면서 자기 수양을 하는 것을 삶의 중요한 과정으로 삼았다. 선비들은 산과 물이 어우러진 이상적인 장소를 찾았으며 거기에 작은 집을 짓고 성리학을 통한 삶의 바른 태도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정자공간은 불필요한 군더더기가 사라지고 가장 절제되고 축소된 공간이 남아 있고 그 공간은 주변의 자연경관과 일체가 된다. 소박한 것이 좋고 농염한 것은 좋지 않으며, 정갈한 것이 좋고 화려한 것은 좋지 않다. 장수와 유식을 위한 내부공간 역시 극도의 절제되고 조촐한 구성을 이루고 있다. 정자건축에 반영된 우리 민족의 기질과 성향은 바로 자연주의이다. 앞서 전술한 우리의 지형적 특성과 사시사철 계절의 변화라는 기후적 영향으로 우리에게 자연은 삶의 일부이자 이상인 것이다. 우리의 정자를 포함하여 한국의 이상적인 정원, 나아가 한국의 건축 모두가 이상으로 지향한 공간으로 표현하였다.

한국의 누정은 중국에 비해 건축양식적인 측면이나 공간특성, 경관처리에 있어서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정원은 자연과 분리되지 않은 자연의 연장이다. 정자를 주위 자연에 어울리도록 세밀하게 꾸밈으로써 인위적이지 않고, 황량한 대지 위에 어울리도록 화려하게 지어진 건축물이 아니다. 우리의 정자건축은 자연 속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을뿐더러 가장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진 소박한 건축물일 뿐이다.

정자는 천지 우주가 구체화된 자연 안에 인간이 머물고자하는 본연의 고귀한

심상을 드러내는 공간이다. 인간은 그러한 자연을 택하고 그 안에서 정자를 통해 자연스럽게 동화되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자의 조영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정자의 장소성이다. 정자에는 또한 내부와 외부 사이에 차별이 없다. 정자에 방이 있을지라도 방을 막는 벽은 공간 중간에 칸막이를 친 것에 불과하다. 내외부 사이의 무차별은 자연과의 일체라는 개념을 가르친다. 여기에는 비움의 미학이 있다. 자연과의 일체와 비움이 합침으로써 공간적 무차별이 이루어진다. 내외부 사이의 무차별은 전이공간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전이공간은 곧 처마 밑 툇마루공간이다. 이러한 겹쳐지는 공간은 한 가지 상태만을 갖지 않고 내부와 외부의 모호한 다질화된 공간을 만들어낸다.

정자의 건축공간은 지붕과 바닥으로 구성되어 내부공간도 아니고 외부공간도 아닌 모호한 성격의 전이공간이다. 또한 온돌방이 있더라도 들어열개문을 통해 언제든지 마루를 통해 바깥 경치를 감상하는 등 자연과의 소통을 꾀하여, 그 폐쇄된 물리적인 경계는 언제든지 동시에 개방된 정신적 경계를 이룬다. 이와 같이 정자의 방과 마루의 공간개념은 불확정 특징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자의 건축공간은 경계가 모호하다. 주변 자연 속에 파묻혀 사용자들의 정신세계를 구현함이 더 크기 때문에 건축물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았다. 따라서 물리적 경계인 벽체를 없애고 자연과 더 가까워지려는 의도로 기둥들로만 구성하여 외부영역으로 최대로 확산될 수 있는 구성을 하였다. 물리적으로 감싸여진 경계와 시각적으로 한정된 공간의 경계 사이에 있는 여백 안에 처마공간과 같은 완충공간이 있다. 공간의 확장 가변성은 융통성과 암시성을 동시에 지니는 공간의 특성으로 경계를 확장함으로써 물리적 경계와 시각적 경계를 넘나드는 상대적 여백을 생성하여 공간의 물리적 확장뿐 아니라 지각의 무한경계를 인식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낸다.

허(虛를) 통한 무위성은 우리 선조들이 가지고 있던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고자 함으로써 나타나는 비물질적 특성이다. 인위적인 문화가 없으며 자연그대로의 텅 빈 상태를 말을 하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텅 빈 상태란 단지 물질이 비어 있음으로 구현되는 것보다 생명의 기운인 기가 차있는 허를 말한다. 이는 시각적으로 비어 있는 공간이 관념적으로 기가 가득 찬 함축되고 밀도가 높은 공간을 말한다. 즉 다양한 행위와 기능성을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다. 과거의 사대부들은 무위라는 개념을 건축에 투영함으로써 노자가 말하는 자연그대로의 텅 빈 상태, 즉 근원인 무(無)에 이른 삶을 구현하고자 했다. 정자는 이러한 비움의 공간 혹은 무의의 공간을 즐겨 구성했다.

제 2부
분석

1장. 사용자들의 디자인 의식과 태도분석

1절 정자문화에 부여된 우리의 인간성에 관하여
: 정자문화에 어떤 사상, 의식, 태도가 담겨져 있는가?

① 사상적 기원

정자의 사상적 배경은 먼저 중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국의 『사기(史記)』에 따르면 누(樓)가 신선사상과 연관이 있고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음을 보여준다. 누와 정(亭)은 엄격히 말하면 규모와 성격이 다르지만, 누정건축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기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맥락을 거의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중국 송(宋)대의 영조법식(營造法式)에는 "정(亭)은 백성이 안정하는 바이니 정에는 누(樓)가 있다. 정은 사람이 모이고 마무른 곳"이라 해서 정자에는 누의 속성이 그대로 담겨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에서는 이미 기원전부터 무위자연을 주장하는 노자와 장자가 출현하였고, 시황제나 현무제 등은 신선이 산다는 봉래(蓬萊), 방장(方丈), 영주(瀛州) 등의 선계(仙界)를 현실화하여 정자를 포함하는 신선의 정원을 꾸민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정자의 근원은 신선이 사는 집과 그 주변에 있는 자연의 경관을 포함하는 이상향의 공간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신선사상(神仙思想) 혹은 도가사상(道家思想)

우리나라 역시 신선사상 혹은 도가사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백제의 무왕은 궁 남쪽에 연못을 만들고 20여리에서 물을 끌어들이고 사방의 언덕에 버드나무를 심고 못 속에 섬을 만들되, 방장의 선산(仙山)을 모방하였다고 한 것도 중국에서 들어온 신선사상의 영향이다. 약 7세기경 중국에서 들어온 노장사상이 우리나라에 이미 들어와 정자건축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 문학의 대표작 중 하나로 꼽히는『동문선(同文選)』에 수록된 이규보(李奎報)의 「사륜정기(四輪亭記)」에 나오는 정자 역시 도교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신선사상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1]. 고려 한시문학의 신선사상을 논하기를 "이상향의 동경에서 선경의 심상(心像)으로는 무릉도원 등의 선(仙) 소재를 선택하여 주로 루, 정, 사(寺) 등의 배경을 선경으로 환원시켜 안주하기를 바라는 시심(詩心)을, 그리고 선인의 심상으로는 선경, 선적(仙跡)의 심상을 포괄하여 작가 자신이 신선이 되어 그곳에 안주하기를 바라는 시심을 주로 노래하고 있다." 고 했는데, 이규보는 이러한 신선생활을 구체적으로

1) 박언곤, 『정자실측조사보고서-정자의 분포와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문화재연구소, 1993, p.26.

실현시키기 위해 건축적으로 고안한 것이 바로 사륜정인 것이다. 그는 평면계획의 의도 자체를 바둑판 정간에 비유함으로써 신선사상을 느끼게 하는데, 이것은 바둑을 둔다는 것은 곧 신선의 중요한 놀이로 비유되기 때문이다.
정자를 구성하는 난간의 세부 구성부재의 의장성을 보면 난간동자의 머리나 띠장 위에 놓여 두겁대를 받치는 연엽(蓮葉)의 초각(草刻)을 한 하엽(荷葉)이나 하부 띠장과 지방 사이를 막아댄 궁창판에 운형(雲形)의 투각을 한 안상(眼象) 등이 상징적 의미를 표현한다. 이러한 구성부재의 장식은 정자에 앉아 외부를 조망하는 자로 하여금 구름 위의 천상세계에서 하계를 내려다보거나 연못의 연잎 위를 떠다니는 듯한 마치 신선과 같은 경지를 느끼도록 의도하고 있다.
그밖에 조선시대에의 개인 문집이나 누정기 등의 작품을 보면 상당한 수의 정자들이 신선의 영역을 다루는 내용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신선사상의 영향을 받은 누정의 사례는, 부용정(芙蓉亭), 금선정(琴仙亭), 방호정(方壺亭)[2], 함허정(涵虛亭), 소요정(逍遙亭) 등이 있다.

그밖에 우리 전통사회의 자연관 내지 인생관에 구체적으로 반영된 사상 중의 하나가 도가적 은일사상이다. 은둔사상이 참여를 거부하는 완전한 현실 도피를 의미하는데 반해 도가적 은일사상은 노장사상의 핵심인 도와 무위의 개념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자연이라는 모든 존재의 모태 속으로 돌아감으로써 인간의 우환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자연에의 귀의를 의미하는 것이다. 은일사상은 현세에 대한 관심이나 명리에 연연한 욕망을 벗어나 스스로의 고답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도가적 은일사상은 은일적 자연관으로 발전되어 전통사회, 특히 조선시대의 시조 등의 문학에서부터 조경문화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 예로는 농월정(弄月亭), 농산정(籠山亭), 요수정(樂水亭), 초간정(草澗亭), 만휴정(晩休亭), 심원정(尋源亭)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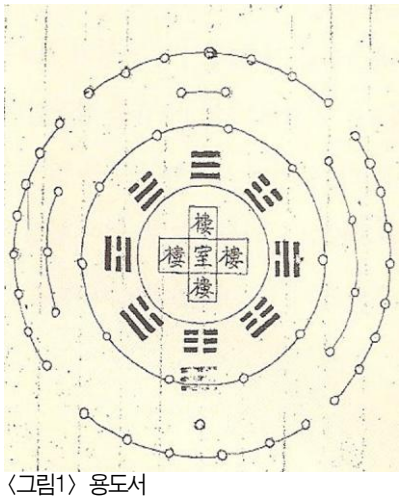
③ 음양사상

음양사상의 미학은 고래로부터 전래되어온 우리나라의 여러 사상 중 근간을 이루는 사상 가운데 하나이다. 주역은 이러한 음양론을 풀어서 하나의 이론적 철학을 이룬 것인데, 수의 의미라든가 그 상징적 표현은 논리를 해석해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음양론을 바탕으로 사륜정에 적용된 수리의 풀이를 지적하면, "바퀴 넷으로 한 것은 사시(四時)를 뜻한 것이요(輪以四者 象四時也)" 라고 한 대목이 있는데, 여기서 사시가 춘, 하, 추, 동을 의미한다는 것은 말할 여지가 없다. "정자를 6척으로 한 것은 육기(六氣)를 나타낸 것이며(亭六尺者 象六氣也)" 라고 한 대목에서는 육기는 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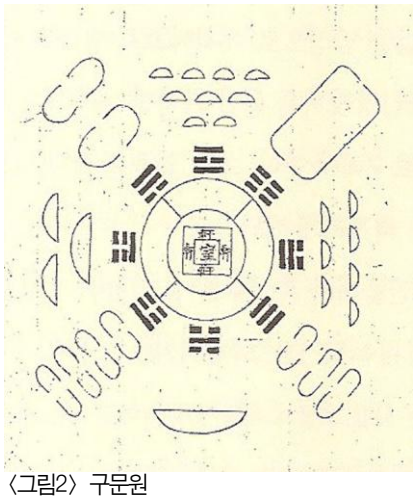
2) 발해(渤海)의 동쪽에 신선이 산다는 다섯 섬

사이의 여섯 가지 기운, 즉 음(陰), 양(陽), 풍(風), 우(雨), 회(晦), 명(明)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음양사상의 미학이 정자에 상징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보다 철학적이고 심도있게 정자를 계획하였다고 볼 수 있다.

조선후기의 학자 서유구는 정원을 꾸밀 때 정자의 형태를 두 가지로 분류하여 조성함을 원칙으로 했는데 여기에는 하도와 낙서라는 주역사상의 계획원리가 담겨져 있다. 즉 평지에 정자를 세울 때 그 형태는 십(十)자형으로 한가운데 방을 두고, 사방의 날개채에 누를 두는 형식이다. 연못에 안의 섬에 정자 형태는 한가운데 실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처마를 두도록 하였다.[3] 여기에는 음양사상에서 비롯된 우주만물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계획원리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용도서(龍圖墅)라 하는 것은 하도(河圖)이다. 별장을 지으려 할 때 하도의 위치와 수를 본으로 삼아 세운다. 수평의 넓은 대지를 택하여 높이 세 자, 지름 다섯 보가 되는 원형의 단을 쌓은 다음 그 단 위에 십자(十字)로 된 누각을 세운다. 이 누각은 다섯 칸으로 중앙에 내실을 만들고, 네 모서리에는 누를 만든다. 이는 천오(天五)를 상징한다. (생략)(그림1 참조) 구문(龜文)이라 하는 것은 낙서(洛書)이다. 동산을 만들고자



〈그림1〉 용도서


〈그림2〉 구문원

할 때, 낙서의 위치와 수를 본으로 삼아 세운다. 수평의 넓은 대지를 택하여 중앙에 지름이 대략 다섯 보쯤 되는 원형의 섬을 만들고, 그 위에 태극정(太極亭)을 짓는다. 정자의 중앙에는 내실을 만들고, 네 모서리에는 헌(軒)을 만든다.(생략)" (그림3 참조) 현존하는 정자와 원림 중 용도서와 구문원에 따라 지어진 예는 하나도 없지만, 적어도 그 조영원리에는 음양사상의 미학이 숨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밖에 실제로 정자건축은 남아 있지 않지만, 바닥 암반에 새겨진 팔괘도의 모습을 통해 당시 건립당시 음양사상의 주역원리가 건축계획원리에 영향을 주

3) 서유구, 안대희역, 『산수간에 집을 짓고』, 돌베개, 2009, p.38

〈그림3〉 인문석

었던 예가 있다. 17세기 한양의 남산 일대의 집 가운데는 김육(金堉:1580-1658)의 집이 특히 이름이 높았다. 초가삼간에 불과했지만 멋을 아는 사람이기에 몇 개의 정자를 꾸몄다. 그중 하나가 태극정(太極亭)인데, 주렴계(周濂溪)가 이른 무극이태극(無極而太極)의 뜻을 취한 것이다. 정자의 지붕을 둥글게 하고 아래에 네모난 상을 깔았는데 이는 곧 천지를 본뜬 것이고, 위에 서까래 여덟 개를 둔 것은 8괘를 형상한 것이고, 배로 늘려 여덟 개를 더한 것은 16괘를 형상한 것이며, 가로질러 다섯 개를 맨 것은 오행을 상징한 것이었다고 전해진다. 즉 이 정자 역시 사륜정과 마찬가지로 주역에서 이르는 음양사상의 원리에 따라 건축을 구성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예는 소우주의 표상으로 잘 알려진 화천 화음동 계곡에 있는 삼일정(三一亭)의 예에서 잘 나타난다. 이 정자를 지은 사람은 김수증(金壽增:1624-1701)이다. 그는 인문석이라고 불리우는 암반 위에 하도, 낙서 등을 새겨 놓고 그 위에 삼일정을 세웠는데, 각 기둥들과 대들보에는 주역의 원리들을 표현하였다.[4] 결국 삼일정은 주역의 체계에 따른 하나의 소우주로서, 오늘날 삼일정은 사라졌지만 너럭바위에 새겨진 여러 가지 글씨와 그림은 여전히 남아 있다.(그림3 참조)

정자를 구성하는 난간의 형태에서도 음양사상을 표현하였다. 창덕궁 후원 내의 부용정(芙蓉亭) 난간의 띠살 구성은 일반적인 아(亞)자나 만(卍)자살이 아닌 천(天-○), 지(地-□), 인(人-△)을 상징하는 간살로 구성되어 정자 내의 공간에서 천상과 지상의 형이상학적 공간의 경험을 은유적으로 상징하기도 하였다.

4) 이종묵, 『조선의 문화공간3』, 휴머니스트, 2006, p.394

④ 유가사상(儒家思想)

우리나라의 정자는 대부분 조선시대에 지어졌다. 여기에 유교의 사상적 뿌리가 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현재 전국에 분포한 정자들의 사상적 배경과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식이나 태도는 유교에서 말하는 철학적 이상이 담겨 있다. 가령 존덕정(尊德亭), 군자정(君子亭), 경정(敬亭), 경체정(景棣亭)[5] 과 체화정(逮華亭), 식영정(息影亭), 하환정(何換亭), 호연정(浩然亭), 활래정(活來亭) 등이 그 예이다.

공자 이후 유학자들에 있어 자연을 심리적으로 감상하고 즐기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심상 수양의 표본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성리학자들은 자연관이나 유교이념, 즉 독서, 수양, 견문 등과 자연 이치와 원리를 깨닫는데 필요한 것은 곧 사색과 휴식이 필연적인 것이며, 더 나은 유교이념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다시 말해 독서, 수양, 견문 등을 장수(藏修))라고 한다면 자연의 이치와 원리를 깨닫는데 필요한 것을 바로 유식(遊息)이라고 하였다.[6] 결국 정자는 장수와 유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간이지만, 세분화한다면 서원과 같은 강학의 기능의 강화된 경우를 장수의 공간, 유식이 강조된 경우가 정자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리학자들의 학문을 행하는 이념인 유식은 장수와 혼재되어 한 공간 속에서 사용되며 주변의 산과 수계, 괴석, 수목 등의 차경요소와 온돌, 마루 등의 건축공간에까지 끌어들여 관찰하고 사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식공간은 조선 사림에 적용되어 정사(精舍), 정(亭), 별서(別墅), 누각(樓閣), 서원(書院) 등으로 이상향을 표현했으며, 이는 산수와 풍광이 좋은 곳을 선호하게 되는 입지선정뿐만 아니라, 건축 활동에서도 성리학적 자연관과 사고관인 유식이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

2절 정자문화를 통해본 우리의 미의식에 관하여

: 정자문화를 통해본 우리의 미적 미적가치와 디자인적 요소는 무엇인가?

① 산수화의 정자를 통한 인간가치와 미의식

산수화는 회화가 갖는 특성으로 인해 묘사가 구체적이며 화가의 의도를 파악하기에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시대의 산수화는 정자건축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있어서는 나름대로 사료로서의 설득력을 갖는다. 현존하는 조선시대 산수화는 화가가 그린 것이 대부분이고 간혹 문인들이 그린 것도 있다. 산수화에 그려진 내용은 화가와 이들이 친교를 맺고 있던 사대부의 생활사상과 미의식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5) 『시경』, 「소아편」에 나오는 형제간의 우애를 그린 글

6) 김상협, 최경란, 「조선시대 정자건축의 유식공간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5권9호), 2009, pp,198-199

유교철학을 정치와 생활의 근본이념으로 삼는 조선시대 지식인들은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고 이상과 부합하지 않게 되면 자신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 현실로부터 도피하여 은둔하고자 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 이들은 그 속에서 소요음영(逍遙吟詠)하고자 하였으며, 고답(高踏)을 추구하면서 은일을 즐기고자 하였다. 조선시대 유명한 화가들은 대부분 산수화에 정자를 그리고 있는데, 정자는 인공 구조물 가운데 주거와 함께 주된 소재이다. 화폭 안의 정자는 마치 속세에서 떠난 곳, 자연의 순수함이 존재하는 곳에 입지하여 이상향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자에 앉으면 세속을 떠난 절경이거나 인간 세상이 아닌 선경(仙境)이 시작되는 지점으로 느껴지고 있다.

안견(安堅)의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는 세종대왕 3남인 안평대군이 꿈에 거닐던 도원을 안견에게 설명해주어 그린 작품이다. 이 작품의 오른쪽 상단에 그려진 건물은 맑은 내와 폭포, 기암과 복숭아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그려지고 있어 안에 앉아 멀리 내다보이는 절경을 감상하려는 의도를 볼 수 있다.(그림4 참조) 산수화 속의 정자에서 행해지는 기능을 살펴보면 사색, 담소, 학문의 소양, 경관감상 등을 하는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유신(李維新)의 〈행정추상도(杏亭秋賞圖)〉에서는 여러 명의 선비들이 주변에 펼쳐지는 가을을 감상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풍류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산수화는 정자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통해 사대부의 실존을 표현하게 된다.(그림5 참조) 조선시대 산수화의 대가인 이인문(李寅文1745-1821)의 그림을 통해 정자가 가지는 의미를 파악해 보면 이인문은 〈송하담소도(松下談笑圖)〉에는 두 사람의 선비가 소나무 아래에서 맑은 계류를 보면서 점잖게 담소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그림6 참조) 〈누각아집도(樓閣雅集圖)〉에는 책과 필묵을 놓고 대여섯명이 편하게 둘러 앉아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건축의 입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그림7 참조) 〈강산무진도(江山無盡圖)〉등 그의 많은 산수화에 정자를 강하게 부각시키면서 동시에 〈연정수업(蓮亭授業)〉, 〈사현청유도(四賢淸遊圖)〉 등은 거문고 음율에 시를 담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공부하는 모습, 시를 짓는 모습 등으로 정자에서 일어나는 풍경을 명확히 표현하고 있다.(그림8 참조) 이인문

〈그림4〉 안견, 〈몽유도원도〉부분

〈그림5〉 이유신, 〈행정추상도〉

〈그림6〉 이인문, 〈송하담소도〉

〈그림7〉 이인문, 〈누각아집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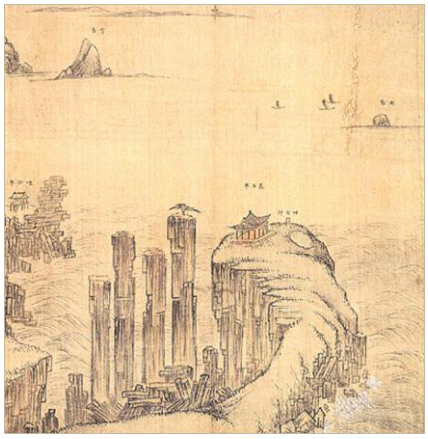
이 즐겨 그린 정자의 모습은 한 칸짜리 모정(茅亭)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어 거주성의 개념을 지니거나 집회, 종교의식, 모임 등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학문적 정신수양, 풍류의 장소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자는 조선시대의 대표적 화가인 김홍도의 그림에도 나타난다. 〈군현도(群賢圖)〉에는 한가로운 자연을 배경으로 책과 필묵을 준비해놓고 시를 음미하고, 거문고

〈그림8〉 이인문, 〈연정수업〉

의 음률에 몸을 싣고 있는 듯한 6명의 학자와 한쪽에서는 차를 끓이는 동자의 그림이 있다.(그림9 참조) 이와 같이 자연 즉, 선경 속에서 선인이 되어 보려는 수양을 위해서는 비바람과 햇볕을 막아줄 지붕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러한 건축물이 정자인 것이다. 또한 〈총석정도(叢石亭圖)〉는 높고 가파른 절벽 위의 평지에 지은 정자를 묘사하고 있는데 정자 전면에 펼쳐지는 기암괴석의 절경을 조망할 수 있도록 조영하였다.(그림10 참조) 정선은 이와 같이 정자가 있는 해금강 총석정의 모습을 평생 그렸다고 전해진다.(그림11 참조)

〈그림9〉
김홍도, 〈군현도〉

〈그림10〉
김홍도, 〈촉석정도〉



〈그림11〉 정선, 〈촉성정도〉

〈그림12〉 윤두서, 〈송하관폭도〉

윤두서가 그린 〈송하관폭도(松下觀瀑圖)〉」에서 혼자 옆에 거문고를 내려놓고 주위에 막대기를 간단하게 꽂아 난간처럼 두르고 거기에 몸을 의지하여 폭포를 보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를 통해 정자의 조영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그림12 참조)

이와 같이 그림들에 나타나는 정자를 살펴보면 정자는 인공의 구조물이지만 자연을 있는 그대로 담기 위한 공간임을 보여준다. 산수화에 나타나는 정자는 한 칸, 혹은 두 칸 가량의 최소 규모가 대부분이며 간혹 측면부에 온돌방으로 보이는 정자가 나타나지만 대부분 벽없이 기둥만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전면으로 별도의 구조물은 없으며 난간을 간단하게 가설해 주변의 경관에 대해 개방성을 갖도록 구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자는 산수화에 있어 탈속이나 풍류의 상징으로서 속세를 떠나 대자연속에 깊숙이 파묻혀 인생을 즐기고 유유자적(悠悠自適)하며 안빈낙도(安貧樂道)하는 현인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이때 소나무는 세속을 멀리하려는 선비들의 마음을 의탁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간주되며, 정자는 대자연의 일경(一景)을 상징적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형이상학의 정신세계로 몰입하는 관념적인 공간으로 그려진다. 산수화에 표현되는 정자는 기능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풍광이 빼어난 위치에 적절한 규모로 축조하게 되므로 이 정자 안에서 풍류를 행하고자 하는 심성을 엿볼 수 있으며 그림 안에 정자를 표현함으로써 산수화의 점경물(點景物)로서 부각되기도 한다.

② 문학작품 속 정자에 나타난 인간가치와 미의식

많은 문인들은 글을 통하여 주변의 절경과 산과 물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빼어난 산수 속에 대부분 정자를 직접 짓고 현판을 걸어 후세에 남기거나, 개인문집을 통해 문인들이 생각하는 절경 속 정자에 담긴 인간가치와 미의식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 대부분의 글들은 정자가 세우진 곳의 산과

물의 모습과 달빛이나 바람소리 등 자연의 일부가 정자와 아우러지는 풍광을 담고 있다.

〈그림13〉 정선, 〈압구정〉

조선 초기 상당부원군 한명회(韓明澮)는 압구정(鴨鷗亭)의 주인이다. 정자에 압구정이라는 현액을 달 때 김수온(金守溫)으로부터 기문을 받았는데, 그 내용에는 강변 언덕 위에 세워진 정자는 주로 강을 완상하지만 멀리 보이는 각 산들의 자태도 감상할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그림13 참조) 특히 이 주변지역인 동호일대는 당대의 명승으로 크게 이름을 떨쳤는데, 낙천정(樂天亭), 화양정(華陽亭), 황화정(皇華亭), 성덕정(聖德亭), 유하정(流霞亭) 등 이름난 왕실의 정자가 있어 문학과 예술의 공간이 되었다. 이처럼 한강 주변의 풍광 좋은 곳의 정자는 선비뿐만 아니라 왕들에게도 태평시대의 생활 속 여유를 찾게 하는 유희의 공간을 알게 하는 대목이다. 하동의 평사리로 들어가는 초입, 섬진강가에 악양정(岳陽亭)이 있다. 이곳은 16세기 학술사에서 『소학』의 위상을 한껏 높힌 일두 정여창(鄭汝昌)이 강학하던 곳이다. 훗날 1899년 최익현이 없어진 악양정을 다시 세우고 기문을 붙였는데, 여기에는 정자가 섬진강을 바라보는 완상의 기능뿐만 아니라 서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공간임을 밝히고 있다.(그림14 참조) 조광조(趙光祖)가 살아생전 지었던 용인의 사은정(四隱亭)은 부친이 죽은 뒤, 직계의 선영이 있던 곳 아래 초가 몇 칸의 집으로서, 못을 파고 계단을 만들었으며 연꽃과 잣나무를 심어 쉴 곳으로 만들어 학문에 전념하였다. 개혁을 부르짖던 조광조는 음모에 의해 젊은 나이에 죽자 그의 정자도 사라지게 되었다. 그 뒤 300여년의 세월이 지난 18세기 말엽 그 뜻을 기리고자 하는 후손들의 노력에 의해 사은정이 중창되었는데, 당시 문장으로 이름이 높은 정범조의 기문을 살펴보면, 정계에서 물러나 평생을 은거하면서 보내려는 조광조의 모습을 정자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즉

정자는 은거하는 자의 조촐한 삶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가치와 미의식이 담겨 있다.(그림15 참조)

〈그림14〉〈악양정〉

〈그림15〉사은정

서경덕은 격물궁리(格物窮理)를 통하여 점차 그 학문적 명성을 더해 갔다. 조정에서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고, 화단의 서재에서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서경덕이 화담에 살게 된 것은 부모의 무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제자 허엽(許曄)에 따르면 서경덕은 산수가 아름다운 곳을 보면 춤을 추었다고 하니, 화담의 산수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평생을 이곳에서 산 것이다. 그가 지은 『화담집』을 보면, 정자를 신선이 사는 집으로 묘사하였다. 서경덕이 죽은 후 화담에는 서사정(逝斯亭)이라는 정자도 생겨났는데, 이곳을 찾은 이정구의 기문에서도 나타나듯이 꿈에 나타난 서경덕 즉 신선과의 한바탕 놀음에서도 그렇듯이 정자는 신선이 머무는 공간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그림16 참조)

〈그림16〉 강세황, 〈서사정〉

2장. 디자인 풍토적 , 사회적 맥락 분석

– 디자인에 작용한 생활세계의 풍토적 배경과 시대적 영향 요인은 무엇인가?

1절 정자문화에 작용한 풍토적 배경

: 우리나라의 풍토적 배경(기후, 지형, 생태, 토양, 식생)이 정자건축과 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우리나라는 대부분 노년기의 지형을 형성하고 있다. 노년기의 지형은 오랜 세월 지내오는 동안 기복이 점점 완만해져 둥글고 부드러운 곡선의 형태를 지닌 지형으로 나타난다. 서양의 경우 유년기나 장년기의 산의 경우 그를 바라보는 인간에게 정상을 향하여 오르도록 유인하는 도전적 마음을 학습시키며 "산을 정복한다" 라는 정복의 개념이 자연에 대한 인간의 승리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편화시켰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반대로 편히 쉬는 자연, 세속을 잊게 하는 자연으로서, 산에서 오는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지각되어 오는 조형성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주었고 심미적 만족감을 주는 대상으로 함께하여 왔다. 우리의 자연은 허하면서도 실하고, 실하면서도 허하다고 하겠다. 즉 우리의 산은 거대하게 공간을 채워주는 만큼 크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는 실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거대함은 없으나 한갓진 공간을 마련해 주고 있다. 조용하고 비어 있는 듯한 공간, 크고 넓으면서도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는 한가로움은 한국미의 조형언어를 이해하는데 적절한 개념이다. 이러한 조형 개념은 빈듯하면서도 가득 찬 느낌 쓸데없이 공간을 나누고 많은 것으로 채우려는 의

식을 멀리하게 된다. 한국인의 인간성, 그리고 기질과 성향은 이러한 자연과의 관계가 이(理)에 바탕을 두고 따르는 것을 일리(一理)로, 이치(理致)로, 道理로 살아온 정신으로 맺어지는 것이다.[7]

우리나라 기후의 특성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온난다습, 한랭건조하여 여름에는 무덥고 습기가 많으며, 겨울에는 춥고 건조한 날씨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기후특성은 건축에도 영향을 끼쳤음은 말할 나위없다. 자연 속에 존재 하는 현존하는 정자는 대부분 마루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온돌방이 하나나 둘이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자는 보통 처음에 건립되었을 때 1칸에서 3칸 정도의 소규모 마루로 구성된 초정으로 건립되다가, 중건과 재건의 과정을 거쳐 와가로 구성되며 규모가 커지기도 하는데, 이때 마루로만 구성된 초기와는 달리 온돌방이 추가되기도 한다.

정자를 포한한 우리의 한옥은 기후에 대하여 서양의 시각과는 다르다. 혹독한 자연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을 비바람을 막아주고 겨울에 따뜻한 활동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의미에서 서양의 것과 같지만, 자연의 기후요소로부터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 자연을 개조하고 다스린다는 문명 활동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우리의 한옥은 자연으로부터의 이러한 갈등요인을 최소화함으로써 몸과 마음을 보존하는 생명의 자유정신을 기본출발점으로 삼는다. 즉 자연의 큰 면을 보고 그것에 사람이 맞추어야 하며, 이런 사람들에게 기후는 사람을 위협하는 요소가 아니며 단지 참고 견딜만한 대상일 뿐이다. 사람의 몸은 실제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기후 요소에 강인하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자연은 햇빛과 바람을 준다. 이 둘을 조금이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사람에게 기후요소는 큰 위협과 걱정거리가 아니다.[8] 특히 정자의 경우, 벽체 없이 기둥과 마루로만 이루어져 여름에는 시원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겨울에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정자가 서있는 위치의 향(向)과, 하루 시간대에 따라 햇빛만 잘 이용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정자는 여름의 시원한 바람과 함께, 겨울의 따뜻한 겨울햇빛도 함께 느껴야 한다. 정자는 기후 요소를 활용하여 인간에게 얼마나 이로운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깨닫고 이것이 조형적 아름다움까지 만든다는 것을 깨닫는 장소로 이해해야 한다.

산수화나 문인화에 등장하는 정자 주면에는 대부분 소나무가 등장하고 인공연못 주변에 지은 정자는 연을 심는 경우가 많다. 또한 그림에나 실제로 정자 주변에 학을 키우는 경우가 있다. 소나무는 세한삼우(歲寒三友)의 하나로서, 지조나 절개, 탈속과 풍류, 또는 길상과 송축(頌祝)의 상징으로 애호되었다. 소나무가 세한삼우의 하나로 사랑을 받게 된 것은 항상 의연하며 고요한 가운

---

7) 김영기, 『한국인의 기질과 성향을 통해 본 한국미의 이해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4. p.168.

8) 임석재, 『한국 전통건축과 동양공간』, 하우스, 2006, p.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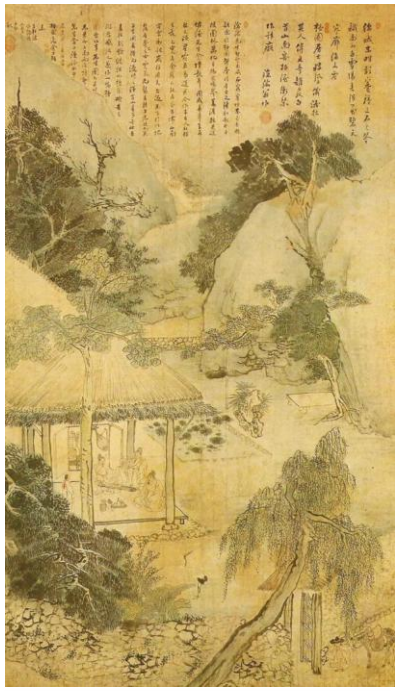
데 나이를 먹는 것이 군자다운 품위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옛 사람들은 향(鄕)에 군자가 없으면 산수와 벗하고, 이(里)에 군자가 없으면 소나무와 대나무를 벗삼는다고 한 것도 소나무와 군자를 동일시한 결과라 할 것이다. 절개를 상징하는 소나무와 건축이 관련된 가장 유명한 그림은 단연코 문인화의 정수 김정희(金正喜)의 〈세한도(歲寒圖)〉이다.(그림17 참조) 옛 사람

〈그림17〉 김정희, 〈세한도〉

들이 학(鶴)을 선조(仙鳥) 또는 태선(胎仙)이라 불렀던 것은, 신선이 타고 다니고 암수가 서로 만나 정하게 주시만 해도 잉태한다는 『상학경』의 내용에 기인했다고 보아진다. 또 학을 고금(皐禽), 또는 구고군(九皐君)이라고 칭했던 것은 으슥한 못가에 숨어서 울어도 그 소리가 하늘 높이 퍼지는 것이 마치 군자의 기풍을 닮았다는 데서 연유한 것으로 믿어진다. 특히 선비들은 고독한 지식인의 외로움을 비유해서 '학고(鶴孤)' 라 하였고, 외진 곳에서 몸을 닦고 마음을 실천하는 선비를 일러 '학명지사(鶴鳴志士)' 라 하였다. 그런가 하면 선비가 은거하여 도를 이루지 못하여 탄식하는 것을 '학명지탄(鶴鳴之歎)' 이라고 하는 등 선비들은 고고한 기품을 지닌 학을 자신들과 동일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학은 옛 사람들의 관념 속에 환상적이고 신비스러운 새로 자리하고 있었으며, 특히 그들에게 있어서 학은 세속을 초월한 은자(隱者), 또는 고고한 자태와 고상한 기품을 지닌 현자(賢者)의 상징이었으며, 그들의 감정과 이상을 이입(移入)시키기에 알맞은 상징적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신숙주의 손자이자 조선초 유학자인 신광한(申光漢1484-1555)은 한양 낙산 아래 폭포수 주변에 폭천정사(瀑泉精舍)를 짓고 살았는데, 그는 여기서 학을 키우며 신선처럼 살았다고 전해진다.[9] 한편 서유구는 은자가 사는 집을 설명하면서, 집 앞쪽으로 학 학 우리를 만들어서 학 몇 마리를 키우고, 뒤쪽에는 개 세 마리, 소 두 마리, 나귀 한 마리를 기른다고 하였다.[10] 이러한 의미로 학은 산수화의 정자에서 등장하게 된다.(그림18 참조) 유교에서는 연꽃의 '연(蓮)' 과 '염(廉)' 의 발음이 중국식으로 같은 점을 인용하여 청렴의 상징으로 보았다. 이 경우에는 주로 단독 문양으로 그려지는데, 이 때 연

9) 이종묵, 앞의 책, p.113.
10) 서유구, 앞의 책, p.18.

꽃은 일품청렴(一品淸廉), 또는 염결봉공(廉潔奉公)의 의미를 가진다. 송나라 선비 주돈이는 그의 「애련설」에서 진흙탕에서 자라지만 그것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의 모습을 칭송하여 '꽃 가운데 군자(花之君子者也)' 라고 하였다. 이것도 연꽃의 순결하고 고상한 품격을 말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연꽃은 유학자들의 극한적인 정적(靜的) 풍류의 대상으로 애호되기도 하였다. 조선의 정약용은 당대의 선비들과 함께 죽란시사(竹欄詩社)라는 모임을 만들어 계절에 따라 정적인 풍류를 즐겼는데, 연꽃 피는 계절이면 이른 새벽에 연지(蓮池)에 나가 꽃피는 소리를 듣는 모임을 가졌다고 한다. 이처럼 유교에서는 연꽃을 선비다운 태도나 풍류의 상징으로 바라보기도 했던 것이다. 한편, 도교에서는 연꽃이 신선의 지물(持物)로 나타나고 있다. 도교 팔선(八仙) 중 하선고(何仙姑)는 사람으로 천도(天桃)를 먹고 선녀가 되었다고 하는 신선인데, 이 신선은 항상 연꽃을 들고 다닌다. 이 때 연꽃은 고결함과 선(仙)의 경지를 상징한다. 연못가에 세워진 정자로서 연꽃과 연잎으로 둘러싸인 사례는 강릉 선교장(船橋莊)의 활래정(活來亭)이 유명하다. 활래정은 주택 내부의 정자이다. 인공으로 만든 연못에 있는 정자로서, 실내에서 창호문을 들어 올리면 연꽃과 연잎, 푸른 반송(盤松)이 한 눈에 들어오는데, 이러한 완상의 정자공간은 전통적 공간정서를 느끼게 한다.(그림19 참조)



〈그림18〉 김홍도, 〈단원도〉

〈그림19〉 〈활래정〉

③ 유교문화에 따른 풍토의 해석 – 산(山), 수(水)의 자연추구 요소

조선시대의 성리학자들은 우선적으로 장수와 유식을 할 수 있는 입지를 선택하였다. 이는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수양과 심정을 다스릴 수 있는 위치를 상택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연은 무한한 이상향을 펼칠 수 있는 것이었다. 이고(李翺:당나라 문장가)는 산거(山居)를 논한 글에서 "산에 사는 일곱 가지 뛰어난 조건은 괴기한 암석, 기묘한 산봉우리, 흘러내리는 샘물, 깊은 연못, 오래된 나무, 아름다운 풀과 신선한 꽃, 그리고 전망이 훤하게 트인 것이다" 라고 말한바 있다. 이는 자연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조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이한 암석과 산봉우리, 샘물, 연못, 나무, 꽃 등의 조건을 말한다. 또한 『자천소품(煮泉小品)』에는 "산이 중후하면 생물도 중후하고, 산이 기이하면 샘물도 기이하며, 산이 맑으면 샘물도 맑고, 산이 그윽하면 샘물도 그윽하다. 이러한 물은 모두 좋은 품질이다. 산이 깊지 않으면 물이 얕고, 산이 기이하지 않으면 물이 탁하고, 산이 그윽하지 않으면 물이 시끄럽다. 이러한 곳에는 분명히 좋은 품질의 샘물이 없다." 라고 하였다. 정자는 도시 내에 위치한 조영물 외에는 대체적으로 계곡과 절벽 위, 산천경계나 들이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으며 곡(曲)과 경(景) 등의 구곡(九曲)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면앙정기의 주변 경관에 대한 설명은 이를 대변해 주고 있으며, 이외에도 이이의 고산구곡(高山九曲)이나 송익필의 주자구곡(朱子九曲), 송시열의 화양구곡(華陽九曲) 등 산수가 뛰어난 곳에 건립되었다.

물의 이용에 관한 최초의 예는 백제 제29대 무왕35년(634)에 사비성의 궁 남쪽에 만든 지원(池苑)에 관한 삼국사기의 기록이다. 이후 조선에 정착하여 의식적이던 무의식적이던 간에 신선사상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못(池), 연지(蓮池)를 조성하여 생활공간 안에까지 끌어들였다. 이러한 사례는 활래정(活來亭)과 임대정(臨對亭), 군자정(君子亭) 등 많은 건축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에 선비들은 특히 시내가 흐르는 장소를 좋아했고, 그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그런데 시냇가에서 읊었던 시들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물을 단지 보이는 그대로 시각적으로 보고 있었다면 조금 시간이 흐르면 물이 흐르는 소리에 취해 있었고 좀 더 발전을 하면 이제는 인위적인 음악소리 보다는 물 흐르는 자연의 소리에 흠뻑 젖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은 『맹자』, 「진심(塵心)」에는 "물을 보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 반드시 그 흐름을 보아야 한다. 흐르는 물은 웅덩이가 차지 않으면 흘러가지 않으니 군자가 도를 뜻함에 문장을 이루지 않으면 통달하지 않는다" 라고 하였다. 즉 나를 닦고 수양하는 일련의 생활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수(水)의 요소에서 찾고자 하였으며 물을 보면서 자기반성, 수양을 하는 도구로서 삼았던 것이다. 또한 퇴계의『언행록(言行錄)』, 「요산수(樂山水)」에서는 언제나 물가에 임해서 자리를 잡았으며 흘러가는 것을 감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학문에 매진하고자 했다. 따라서 조선시대 정자건축 주변에는 언제나 수의 요소가 있으며 내부공간까지 끌어들이는 유식의 요소로 활용한 것이다.

2절 정자문화에 영향을 미친 시대적, 문화적 배경

: 정자문화에 영향을 미친 시대적, 문화적 배경은 무엇인가?

'정(亭)' 의 의미를 한자에서 찾아보면 '정자 정(亭)' 자이다. 이와 함께 '주막집 정', '역말 정', '기를 정', '평평하게 할 정', '고를 정', '곧을 정', '이를 정', '머무를 정', '우뚝 솟을 정' 이라는 뜻도 있다. 정자는 "경치가 좋은 곳에 놀기 위하여 지은 집" 인데, 이규보는 「사륜정기(四輪亭記)」에서 "사방이 툭 트이고 텅 비고 높다랗게 만든 것(作豁然虛敞者謂之亭)이 정자" 라고 하면서 정자와 비슷한 구조인 사(謝)와 누(樓)와는 다르다고 구별했다. 즉 이규보는 루를 2층으로 된 집(重屋)이라고 건물 구조적인 측면으로 정의하였다. 즉 루는 루마루 밑으로 사람이 다닐 수 있거나 혹은 마루가 지면으로부터 높이 솟아 오른 구조를 갖는 것으로 정자와 구분하였다. 반면에 정자는 공간적인 특성으로 정의하였는데, 개방된 공간을 갖도록 만들어져 허창(獻敞)한 느낌을 주는 곳이라 하였다. 이규보의 정자에 관한 정의는 마루를 높인 것이 아니라 높은 곳 위에 세워진 집이기에 공간이 개방되어 있고 허창한 느낌을 주는 곳이라 해석된다.[11]

① 삼국시대의 정자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정자가 축조되었는지 정확히 고증되지 않으나 구조와 형태상 연원은 고구려의 부경(浮京)이라는 소창(小倉)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또한 마선구 1호분의 벽화와 가야 가형토기에서 나타나는 고상창고(高床倉庫)로 보아 이러한 구조가 사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대부터 이미 정자를 건축할 수 있는 능력은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정자에 관한 기록은 『삼국유사』에 "第二十一毗處王(一作炤智王) 卽位十年戊辰 幸於天泉亭 時有烏興鼠來鳴" 이라 하여 해석해보면, "제 21대 비처왕(소지왕이라고도 한다) 즉위 10년 戊辰(488)에 왕이 천천정(天泉亭)으로 거동하였더니 이때에 까마귀와 쥐가 와서 울었다" 라고 하여 기록상 천천정이 가장 오래된 정자로 나타난다. 또 『삼국사기』 권 27, 「백제본기」 중 의자왕조에 "의자왕 15년(655)에 태자궁을 지극히 화려하게

11) 안계복, 「한국의 정자」, 『한국전통조경』, '92 IFLA 한국조직위원회 편, 도서출판 조경, 1994, p.148.

수리하고 왕궁 남쪽에 망해정(望海亭)을 세웠다" 는 기록도 나온다. 신라에서는 655년에 월성(月城)내에 고루(鼓樓)를 세움으로써, 삼국시대에는 궁원(宮苑)에 루와 정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연회의 장소로 주로 활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궁궐과 누정에 관한 기록 등을 종합해보면 7세기 이전에 정자가 일반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라 동궁(東宮)의 원지(苑池)인 안압지(雁鴨池)는 신선이 산다는 무산십이봉(巫山十二峯)을 못가에 조산하고 봉래, 방장, 영주의 삼신도(三神島)를 조성함으로써 신선사상을 배경으로 천상의 세계를 나타내고 있다. 안압지의 정자와 루는 서쪽 호안(護岸) 높은 곳에 위치하여 축경식(縮景式) 기법의 선경을 즐기도록 계획하여 정자와 조경에 의한 경관의 연관성을 알 수 있다. 포석정(鮑石亭)은 그 자리만 남아 있는데 안압지와 다른 궁궐터이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경주포석정조(慶州鮑石亭條)」에, "경주부 남쪽 7리, 금오산 서록에 있다. 돌을 갈아 전복 모양으로 만들어 포석정이라 하였다. 유상곡수연(流觴曲水宴)을 하던 유적이 완연하다" 라 하였다. 흐르는 물에 술잔을 띄어 술잔이 자기 앞에 이르기 전에 시를 짓고 잔의 술을 마시는 곡수연을 즐기던 곳이다. 지금은 돌로 타원형의 전복과 흡사한 모습으로 축조한 물도랑만 남아 있다. 본래에는 정자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12](그림20 참조)

〈그림20〉 포석정

이와 같이 삼국시대에는 신선사상을 배경으로 지어졌는데, 이 시기 누정의 건립 목적은 주로 궁실을 위한 원림의 조성과 함께 군신간의 유휴장소로서 의미가 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성곽을 조성할 때 관망용 누를 설치하였고, 심산유곡의 좋은 곳에도 누를 설치하여 신선생활을 모방하는 심신 수양의 요처

12) 주남철, 『한국의 정원』, 고려대학교출판부, 2009, p.30

로 사용하였다.

② 고려시대의 정자

고려시대에는 연희와 오락, 유흥상화(遊興賞花), 시회(詩會) 등의 장소로 누정을 지었다. 누정은 고려시대 지식층이 모여 교제하는 중요한 모임의 장소로 이용되었다. 『고려사』에 이 시기의 누정과 관련된 기록으로 태조 원년(918)에 의풍루(儀風樓)를 지어 불교행사를 행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목공 10년(1002)에는 연못을 만들고 고대(高臺)를 지어 감상하고 즐기는 장소로 사용했다고 한다. 또 문종 10년(1056)에 태자와 여러 왕족들에게 동지누각(東池樓閣)에서 연화를 베풀고 시를 짓게 하였으며, 예종9년(1115)에는 그곳에서 무사를 뽑았다고 한다. 문종 24년(1070)에는 연경궁 후원 상춘정(賞春亭)에서 곡연을 행하였고, 그 안에는 팔각전과 팔선전(八仙殿)이 있었다고 한다. 특히 「의종조(毅宗條)」의 기록에 따르면, 의종 11년(1157)에 이궁(離宮)으로 만든 수덕궁(壽德宮) 안에 대평정(大平亭), 관란정(觀瀾亭), 양이정(養怡亭), 양화정(養和亭) 등 여러 정자를 짓고, 아름다운 돌들을 정자 좌우에 배열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못을 파고 괴석을 쌓아 선산(仙山)을 만들었으며 멀리서부터 물을 끌어들여 비천(飛泉)을 만드는 등 매우 화려한 신선의 세계를 만들고 있다. 특히 양이정은 아주 귀한 청자기와를 지붕재로 사용하여 화려함의 극치를 나타내고 있어 궁원에 있어서 정자의 중요성을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정자와 통일신라의 동궁과 안압지에서 보여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또한 의종 21년에는 "하청절(河淸節:고려시대 임금을 생일을 기념하는 날)이기에 만춘정(萬春亭)에 행차하여 재신과 추신, 시신과 더불어 연흥전(延興殿)에서 연회를 열었는데, 대악서와 관현방의 준비로 무대 위에서 준화, 헌선도, 포구악 등의 놀이를 갖추어 행하고" 라고 하여 왕은 물론 귀족들이 모여 연회를 하고 교제를 하는 유희의 공감임을 알 수 있다.

『고려사』에 따르면, 그밖에도 어원 밖 명승지에는 많은 누정을 짓고, 사면에 송죽과 진기한 나무들, 아름다운 꽃을 심는 것은 물론 주변에 시냇물을 두르고 곳곳에 다리를 놓았다. 못을 파고 제방을 쌓아 호수를 만들기도 했으며, 때로는 임금이 타고 즐길 배를 만들었는데 배는 금수로 장식하였다고 한다. 왕이 즐겨 찾던 정자로는 송악정(松岳亭), 봉래정(蓬萊亭), 안흥정(安興亭), 동락정(同樂亭), 미화정(美化亭), 유미정(有美亭), 옥촉정(玉燭亭), 마천정(馬川亭), 옥잠정(玉岑亭), 관덕정(觀德亭), 임정(林亭), 관란정(觀瀾亭), 벽파정(碧波亭), 희미정(喜美亭), 황락정(皇樂亭), 벽금정(碧芩亭), 고석정(孤石亭), 장원정(長源亭) 등이 있다.

고려시대 기록 가운데 『宣和奉使高麗圖經:이하 高麗圖經』에 건축과 관련된

내용이 많다. 『고려도경』에는 많은 수의 정자가 거론되고 있는데 권4 「문궐조(門闕條)」의 승평문(昇平門)에 보면 승평문 안에서부터 좌우로 나누어 두 개의 정자를 만들고 모두 동락정(同樂亭)이라고 했다고 적고 있다. 그런데 이 문의 제도가 웅장하고 컸으며 네 모서리는 동화주(銅火珠)라는 장식을 했다고 하므로 정자건축도 매우 화려했음을 알 수 있다.

권 17 「정국안화사(靖國安和寺)」에는 연의정(漣漪亭), 청헌정(淸軒亭)을 묘사한 내용이 나오는데, "옥륜사에서 수십보를 지나면 작은 길이 구불구불 얽혀있고 높은 소나무가 길을 끼고 있는데 삼엄하기가 만자루의 미늘창을 세워 놓은 듯하다. 맑은 물이 여울져 뛰어 오르며 놀란 듯 달려가 돌을 씻어 내는 것이 쇠를 울리고 옥(玉)을 부수는 것과 같다. 시내를 가로질러 다리를 놓았고 건너 쪽 강 언덕에 세운 두 개의 정자가 여울 돌무더기에 반쯤 잠겨 있는데 청헌정, 연의정이 그것으로, 서로간의 거리는 수백보가 된다" 고 적고 있어 정자의 주변 경관과 입지, 물에 드리운 형태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권 27에는 향림정(香林亭)이라는 정자를 묘사한 글이 나오는데 구조, 형태, 기능이 잘 나타나 있다. "그 건제(建制)는 사릉(四稜)이고, 위는 화주(火珠)의 정수리이고, 8면에 난간이 만들어져 있어 기대어 앉을 수 있다. 누운 소나무와 괴석에 여라(女蘿:이끼)와 칡넝쿨이 서로 어울리고 바람이 불면 서늘하여 더위를 느끼지 않게 된다. 정사와 부사는 여가 있는 날에는 언제나 상절의 관속과 차를 끓이고 그 위에 바둑을 두며 종일토록 담소하니 이는 마음과 눈을 유쾌하게 하고 무더위를 물리치는 방편이었다." 고 적고 있어 정자가 휴식의 기능을 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고려도경』에는 벽란정(碧蘭亭), 서교정(西郊亭), 낙빈정(樂賓亭), 군산정(群山亭), 안흥정(安興亭), 경원정(慶源亭) 등을 기록하고 있다.

불교적 성격을 갖는 정자에 대한 기록으로는 이규보가 쓴 「능파정기(凌波亭記)」가 있다. 이는 고려 때의 승려 종혁(宗赫)이 능파사를 짓고 글을 청하자 이에 응하여 써준 글이며 승려의 유관(遊觀)을 위해 누를 지었다는 내용이다. 그밖에 『동문선』에는 많은 누정기가 있다. 이인로는 쌍명재(雙明齋), 공주동정(東亭), 태사공오빈정(太師公娛賓亭), 월등사(越等寺) 죽루(竹樓)에 기문을 썼고, 이규보는 태재(太齋), 사륜정(四輪亭), 진강후모정(晋康候茅亭), 능파정 등에 기문을 썼고, 이재현, 이곡, 이색, 이숭인, 이첨도 많은 누정기를 남겼다.

이렇듯 고려시대의 정자는 풍류를 즐기고 경치를 감상하며 놀이를 하는 장소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지배층의 문화적 단편을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조원기법과 장식적인 치목기술에서 선조들의 빼어난 미적 감각을 느낄 수 있다. 결국 고려시대에 조영된 정자의 배경에는 귀족문화의 화려함을 담는 유희와 오락의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③ 조선시대의 정자 기록

조선시대에는 유교가 국시로 자리 잡으면서 유교적 성격의 누정이 많이 건축되었다. 김수온(金守溫)의 「백운정기(白雲亭記)」에서 이 시기 정자의 성격을 엿볼 수 있다. 김수온은 이 글에서 누정의 명명은 첫째 백성을 사랑하는 뜻, 둘째 담박하게 달게 여기고 청소(淸素)함을 지켜서 염치를 가다듬고, 셋째 조망이 자유로운 정자의 경관, 넷째 고을 이름과 어울림으로 명명 의리를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의 정자는 다분히 유교와 연관이 깊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 정자는 관아나 객사 건물의 부속건물이었던 반면에, 조선시대 정자는 관료들의 필수조건으로 자리 잡아 많은 누정이 건축되었다. 그런데 조선 초기에는 『세종실록지리지』에 나타난 정자의 수가 불과 60여개로 그리 많은 누정이 건립되지는 못하였다. 세종은 지방 수령들이 백성은 돌보지 않고 누각을 지어 술 마시고 시를 짓는데 빠져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누각을 짓지 못하도록 하였다. 성종 역시 종실(宗室)과 재추(宰樞)들이 강가에 정자를 짓고 연희를 여는 것을 탐탁하게 여겨 한강변에 지은 정자를 없애라는 명을 내렸다. 조선 중기에 들어서는 누정건축이 활발해졌으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인해 많은 누정이 소실되었다. 그러나 17세기 후반을 지나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누정의 건축 숫자는 비약적으로 증가한다. 조선시대 누정의 숫자 증가와 함께 이와 관련한 누정을 정사(政事), 행사(行事), 연희의 장소로 쓴 한편 대략 강학과 향약, 휴식과 후학 양성의 공간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은 조선 성종대에 편찬한 『동국여지승람』을 중종의 증수 명에 따라 1530년(중종 25)에 완성한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지리서이다. 내용은 각 도의 연혁과 총론, 관원을 적은 후, 목, 부, 군, 현의 연혁, 관원, 군명, 성씨, 풍속, 형승, 산천, 토산, 성곽, 관방, 봉수, 누정, 학교, 역원, 교량위치, 불우, 사묘, 능묘, 고분, 명현의 사적, 인물, 시인의 제영 등의 순서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국여지승람』 이후에 증보된 것은 신증(新增)으로 밝혀져 있다. 누정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해서 종합해보면, 여지승람에 소개된 전국 누정의 수는 총 553동이며, 국역본에는 『신증문헌비고』, 『대동지지』, 『동국여지비고』 등에 새롭게 보인 누정까지 합하여 885동으로 전한다. 이를 분류하면 루(樓)는 416동, 정(亭)은 365동, 당(堂)은 45동, 나머지는 대(臺), 헌(軒), 각(閣), 관(館) 기타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수치는 누와 정자 뿐 아니라 대, 헌 등 정자와 기능과 형태상 유사한 건축물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으므로 치밀한 해석은 불가능할지라도 조선시대에는 전 시대에 비해 많은 정자가 조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정자는 대부분 조선시대에 지어진 것으

로서 창건부터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존하는 조선시대의 정자들을 분류해보면 그 기능은 종류와 위치에 따라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으며 또 소유의 대상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정자건축이 가지는 의미는 정신적 수양을 기준하여 목적에 따라 조금씩 그 기능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장소와 규모가 설정되었고 건설 재원이 구성되는 것이었다. 그 정자의 기능을 구분해 보면, 첫째 개인적 수양을 위한 풍류의 기능, 둘째 강학을 위한 교육의 기능, 셋째 조상숭배를 위한 종교의식의 기능, 넷째 지역과 혈연의 계모임을 위한 회의기능, 다섯째 은둔과 수학을 위한 주거의 기능(別墅), 여섯째 단순한 휴식을 위한 휴식의 기능(茅亭) 등으로 나누어 질수 있다. 이 중에서 순수한 측면에서 볼 때 정자의 기능은 첫째의 풍류성일 것이다. 이것은 정자의 기본적 의미와 가치가 있다.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의 정자들은 친목, 조상숭배 및 효도, 은둔생활을 위한 목적이면서 사용상 공통점은 정서적 활용을 위해 글을 짓고 독서함이 풍류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낙향하거나 은둔을 위해 주거의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별장의 성격으로 별서건축을 포함하기도 한다. 산 좋고 물 좋은 장소의 정자나 학문도야의 은둔을 목적으로 하는 정자들은 소위 사회 지배계급인 양반층들의 형이상학적 생활의 터전인 반면, 모정은 들에서 휴식을 위한 그늘이나 동네 어귀에 연장자들의 환담장소로 느티나무 밑에 지어 놓아 서민적 생활의 존재인 것이다.

첫째 풍류의 기능을 갖춘 정자는 개인 소유의 경우에 규모가 작고 특히 장소성에 크게 의미를 둔다. 혼자서 학문을 익히고 창작과 독서의 선비생활을 통해서 선인의 경지에서 정신수련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뜻이 맞는 이들과 학문을 겨루며 시를 읊고 즐기기도 하는 장소로서 선경을 택하여 그 선경 속에서 자연에 흡수된 선인이 되고자 하는 형이상학적 생활철학의 실현장인 셈이다. 김이혁(金履赫)이 그린 〈고산구곡담총도(高山九曲潭叢圖)〉[13]는 실경이라기보

〈그림21〉 김이혁, 〈고산구곡담총도〉

13) 고산구곡도는 율곡(栗谷)이 해주(海州) 고산(高山)이라는 곳에 은거하던 때 지은. 고산구곡가와 그뒤 서인(西人)계열 성리학자들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단순한 감상용 산수화가 아니고, 도학적(道學的)내용과 진경(眞景)의 사생(寫生)이며. 또 학파와 정치적 집단의 기념물로서의 의의가 있다.

다는 상상도이며. 한 선비가 책상에 걸터앉아 있는 정자를, 또다른 선비가 동자를 거느리고 찾아오는 산수간의 경치로, 중경과 원경에 높은 산봉우리들이 솟아있고 그 사이로 폭포수가 보인다.(그림21 참조) 이와 같은 풍광 속에 실제 지어진 정자는 함양에 농월정(弄月亭)과 거연정(居然亭)이 있다. 농월정은 안의면 옆을 흐르는 계곡을 따라 육십령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오른쪽에 연못처럼 널따란 물을 앞에 두고 울창한 숲을 배경으로 편편한 암석 위에 우뚝 솟은 중층 누각형식의 정자이다. 1721년 지고당(智足堂) 박명부(朴明榑)가 풍류를 즐기기 위해 지은 것이다.(그림22 참조) 거연정은 1613년 당시 중추부 사였던 김시서(金時敍)가 이주하면서 건립한 것으로 1885년에 후손들이

〈그림22〉 〈농월정〉

〈그림23〉 〈거연정〉

중건하였다. 급하게 굽이쳐 흐르는 계곡물의 자연스러움과 배경의 산세가 어울리는 정자이다.(그림23 참조)

둘째 교육기능의 정자는 정계를 은퇴한 후 낙향했거나 지역 선비가 강학을 위한 건물로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대청과 방을 갖춘 비교적 큰 규모의 정자를 의미한다. 옥천에 있는 양신정(養神亭)은 인종 원년(1545)에 전팽령(全彭齡)니 밀양부사에서 물러나 독서와 휴식을 위해 창건되었다. 이 정자는 풍류 관망의 기능과는 달리 독서와 휴식을 겸한 성격을 띤 별서건축의 예이다.(그림24 참조) 18세기에 그려진 강희언(姜熙彦)의 〈사인삼경도(士人三景道)〉

〈그림24〉 〈양신정〉

는 여름날 시원한 누정의 마루에서 시를 쓰는데 열중이다. 풍류를 즐기는 선비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담은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14] 중 책상 앞에 단정하게 앉아 글씨 쓰는 소동파의 모습과 이 선비들을 비교하여 볼 때, 이들은 자연스러우면서 웃통까지 벗는 등 흐트러진 자세이다.(그림25 참조) 조선시대의 정자는 주면의 경관을 완상하기 위한 기능만이 아닌 강학 혹은 독서의 기능을 갖는 교육의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종교의식상의 정자는 규모에 있어서 강학기능의 정자와 비슷하나 가묘를 위에 두고 있음이 다른 구성이다. 봉화에 있는 경체정(景棣亭)은 조선의 문신(文臣)이며, 충청도 관찰사를 지낸 강윤(姜潤)을 비롯한 강완(姜浣), 강한(姜瀚)의 3형제를 추모하기 위해 세운 정자이다. 강윤의 증손 강태중(姜泰中)이 1770년(영조 46)에 정자를 건립한 후 매년 1회씩 시회와 경도회를 열었다고

14) 중국 송의 왕진경(王晋卿)이 서원(西園)에서 선비 · 도사 · 스님 등과 더불어 아회(雅會)를 갖은 서원아집(西園雅集)은 고사인물의 한 주제로 즐겨 그려졌다. 조선시대 이 주제의 그림은 18세기 이후 것들이 유존되고 있는데 김홍도의 경우 알려진 것만도 〈서면서원아집도〉를 비롯해, 8폭병으로 된 것 등 3점에 이른다.

〈그림25〉 강희언, 〈사인삼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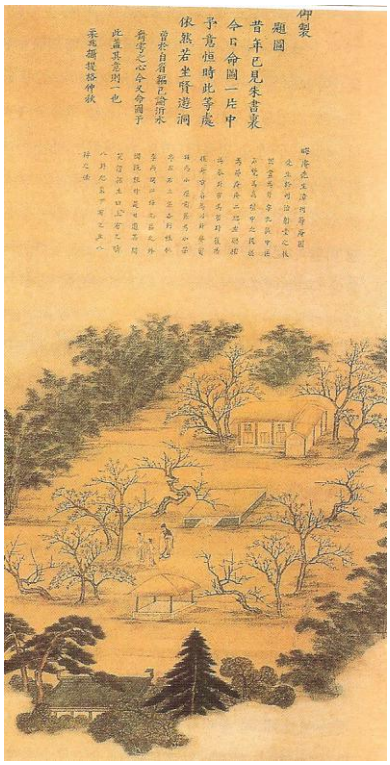
〈그림26〉 〈경체정〉

전해진다.(그림26 참조)

넷째 지연과 혈연 혹은 공동체의 계모임을 위한 회의기능으로서의 정자는 우선 농촌에서 지역사람들이 같이 모여 공동회의를 하는, 특히 호남지역에서 보통 모정(茅亭)부르는 정자와 같은 부류이라고 생각될 수 있으나, 이 부류는 혈연이든 혈연이 아니든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이는 정자이지만, 이보다는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회의를 열고 잔치를 여는 기능을 우선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가령 서울의 망원정(望遠亭)이 좋은 예이다. 망원정은 원래 세종이 말년에 서교(西郊)에 있던 세종의 형인 효령대군의 새 정자에 희우정(喜雨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어필을 내렸는데, 이것이 훗날 망원정이 된 것이다. 조선 후기로 가면서 왕은 물론 왕실의 문사들이 자주 왕래하면서 회의와 시를 읊는 곳으로 되었는데, 〈효종어제희우정시회도(孝宗御製喜雨亭詩會圖)〉는 1653년 희우정에서 도승지 등이 모여 시회를 갖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여기서 정자의 기능은 회의의 기능과 더불어 잔치가 열리는 공간이었다. (그림27 참조)

〈그림27〉 〈효종어제희우정시회도〉

〈그림28〉 〈독락당 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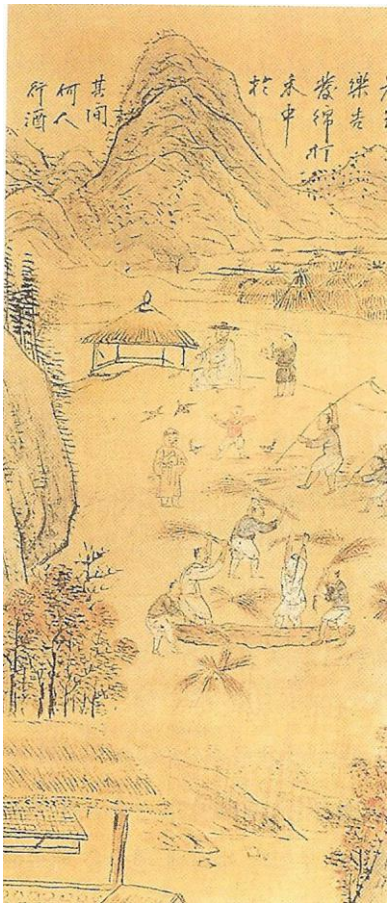


〈그림29〉 작자미상, 〈장주묘암도〉

다섯째 은둔을 위한 주거 기능의 정자는 살림채가 별채로 있거나 정자에 비교적 큰 방을 두고 대청에 난간을 둘러 주택으로서 품위 있는 구조를 하고 있다. 옥산 독락당(獨樂堂)은 이언적(李彦迪1491-1533)이 중종 27년(1532)에 김안로의 복권을 반대하다가 파직당하자 낙향하여 독락당과 안채, 행랑채 등을 짓고 머물었던 곳이다. 계정(溪亭)은 독락당의 한 공간으로 계곡과 집을 이어 주는 역할을 한다. 개울가의 초석 위에 바위의 생김에 따라 각기 길이가 다른 누하주를 세우고 바닥을 마루와 방로 구성하였다. 은둔을 위한 주거 기능의 정자의 좋은 예가 되겠다.(그림28 참조) 이러한 살림집 내의 조영된 정자의 또 다른 예는 작자미상의 산수화 〈장주묘암도(漳州節菴圖)〉에서 볼 수 있다. 이것은 1746년 영조의 명에 의해 그린 그림으로, 송나라 주희가 장주(漳州)의 지사를 지낼 때 『주역』의 원리를 본떠 활터에 후원을 꾸민 일이 있는데, 영조가 주희의 글을 읽다가 감동을 받아 그림으로 묘사하게 한 것이다. 중앙에는 석축의 단을 쌓고 그 뒤에는 초가집을 지어 세 개의 창고를 내었으며, 앞부분에는 작은 초가 정자를 지었다.[15] 살림집 내 앞부분의 전경이

좋은 곳에 한 영역을 따로 두어 정자를 둔 것이다.(그림29 참조)

여섯째 단순한 휴식을 위한 휴식의 기능(茅亭) 등이 있다. 이는 이한철(李漢喆)이 그린 〈세시풍속도(歲時風俗圖〉 제9폭에 잘 나타나 있다. 이 그림은 1년 12달의 행사를 묘사한 그림 가운데 일부로 가을철에 농가 마당에서 가을걷이를 하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이다. 중앙에는 몇몇의 농부들이 벼를 타작하고 있고, 그 뒤편으로 노적가리가 쌓여 있다. 넓은 마당 뒤쪽으로 갓을 쓴 사람이 초가를 덮은 정자 앞에서 담배를 물고 타작을 감독하고 있다.(그림30 참조) 마을 어귀나 논밭을 잘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에 지어진 정자는 양반이 일군들을 감독을 하기도 하지만, 농부들이 일하다가 쉬며 담소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특히 전남 지방에 있는 모정의 기능은 휴식장소, 회의장소, 감시소 등이 있는데, 현재에는 그 가운데 휴식의 기능이 노인당으로서의 기능과 맞물려 모정이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주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16] 현재도 모정은 농촌사회에서 계속 지어지고 있는 것이다.(그림31 참조)



〈그림30〉 이한철, 〈세시풍속도〉

〈그림31〉 모정

15) 서유구, 앞의 책, p.55.

16) 전봉희, 「전남지역의 모정 건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10권5호), 대한건축학회, 1994, p.79.

3장. 개념의 시각화/도구화 과정 분석

– 개념의 구체화에 사용되는 소재와 기법, 기술 등의 한국적 조형특성은 무엇인가?

1절 의미와 가치를 구체화하는 조형행위

: 정자공간에 어떠한 과학적, 기술적 원리가 담겨 있는가?

정자건축은 의장이나 구조적적인 측면에서 타 기능을 가진 건축에 비해 가장 규모가 작고 설계나 시공 상에 나타나는 치목의 수준 역시 가장 떨어지는 건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자건축의 의의는 정자가 갖는 공간성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공간성이란 정자가 처음 들어서기 전 단계인 입지 때의 공간성, 그리고 정자가 대지 위에 섰을 때 생기는 정자 바깥의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으로 인한 공간성을 살펴볼 수가 있겠다. 여기에는 현대과학과 기술로 설명되는 원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시 정자의 조형성을 표현할 수 있는 선비들의 사상이나 지혜의 원리가 담겨 있는 것이다.

① 정자의 입지선정 구성원리

조선 초기에 세워진 누(樓), 정자들은 대부분 도시 내에 위치한다. 그 뒤 16세기 이후 지방에 사림세력이 장성하면서 지어진 산간계곡의 정자와는 기능이나 형태면에서 달랐다. 조선 초기 도시 내 누나 정자들은 규모나 형태, 구조기법에서 16세기 이후 지방 산간의 정자에 비교가 안 되는 월등한 격식을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누와 정자들은 대개 지방 도시 내의 주요 건축물로 자리잡으면서 도시 경관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조선 초기에 세워진 이들은 이후 19세기말까지도 지방 도시의 중요한 시설로 존속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도시의 상징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동국여지승람』에는 일반적으로 누각이나 정자는 독립되어 건립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찰이나 궁궐 등에 일부로 지어지는 경우도 많다. 정자의 기문을 많이 남긴 서거정(徐居正)이 충청도 신창현의 공북루(拱北樓)에 대한 기(記)에서 밝힌 누의 용도는 “누대나 정자를 세우는 것은 관상하며 놀기를 일삼으려는 것이 아니요, 곧 왕명을 받들고 온 이를 존경하고 빈객을 잘 접대하며, 울적한 것을 이끌어 풀어버리기 위한 것” 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기문들에는 높은 누에 올라 백성들의 사는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 수령의 역할이라고 강조한 대목도 보이고 공무에 시달린 답답한 심신을 풀기 위해 높은 다락을 지어 탁 트이고 시원한 기분을 즐기기 위해 정자를 짓는다는 설명도 있다. 이러한 여러 용도가 다 어느 정도 수용되기는 하겠지만 역시 『동국여지승람』에의 각 기문에서 강조한 정자의 용도는 지방관의 접대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 의하면 도시 내에 지어지는 정자의 경우 그 위치는 객사의 동쪽이 가장 많고 그 다음 객사 북쪽, 그리고 서쪽과 남쪽은 소수의 예를 보인다. 그 밖에 성문의 누각으로 지어지는 경우가 있다. 객사의 동쪽이 가장 많은 이유는 누각이 객사에 머무는 외부 관리의 접대가 주 용도가 되고 또 일반적으로 또 일반적으로 동향을 선호하는 결과로 풀이되며 북쪽의 경우는 지방도시의 입지가 대개 북쪽에 경사지를 두고 고을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곳에 자연지형을 활용하려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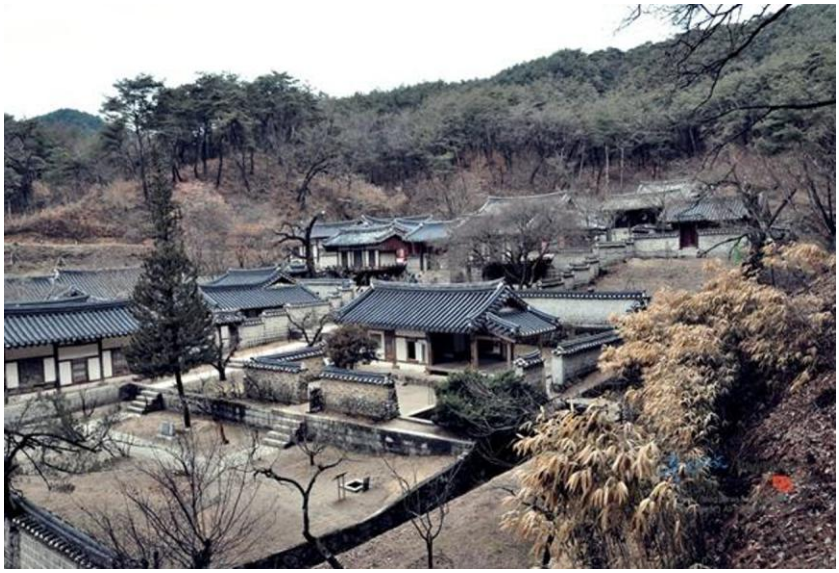
이와 같이 관(官)이 지은 현존 정자의 대표적 사례는 정읍에 있는 피향정(披香亭)이다.(그림32 참조) 피향정은 통일신라 정강왕(定康王, 886~887) 때 태산태수였던 최치원이 세웠다고도 하며, 그가 재직 중에 소요하던 곳이었다고도 하나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다.

〈그림32〉 〈피향정〉

이후 16세기 사림들이 지방 세력을 형성하게 된다. 세속을 벗어난 한적한 곳에 은거하면서 자기 수양을 하는 것을 삶의 중요한 과정으로 삼았다. 이들은 산과 물이 어우러진 이상적인 장소를 찾았으며 거기에 작은 집을 짓고 성리학을 통한 삶의 바른 태도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림들은 자신이 머무는 장소를 선택하였는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으며 때로는 멀리 중국 고대로부터 전해오는 선현들의 자연관을 장소에 반영하여 그 축소판 또는 아류에 견주는 자세도 있었다.

이에 대표적인 것은 송나라 때 주자(朱子)가 만년을 지냈다는 복건성의 무이정사(武夷精舍)는 선비들의 이상향이자 실천대상으로 자리 잡았다. 그래서 은둔의 별서, 정사, 정 등을 건립할 때 주자의 무이구곡(武夷九曲)을 모방하려 하였고, 그를 흠모하여 조영 속에서 상징화하였다. 이러한 것은 조선시대 문

헌 속에서도 적지 않은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에 퇴계의 『도산잡영(陶山雜詠)』18절에는 입지 곳곳에 성리학적 이상형과 유식공간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한다. 즉 도산서당(陶山書堂), 암서헌(巖栖軒), 완락재(玩樂齋), 유정문(幽貞門), 정우당(淨友堂), 절우사(節友社), 농운정서(隴雲精舍), 관란헌(觀瀾軒), 시습재(時習齋), 지숙료(止宿寮), 곡구암(曲球巖), 천연대(天淵臺), 천광운영대(天光雲影臺), 탁영담(濯纓潭), 반타석(盤陀石), 동취병산(東翠屛山), 서취병산(西翠屛山), 부용봉(芙蓉峯) 등과 같이 도산서당 주변에 각기 다른 이름을 명명하여 각각의 조영물에 의미를 대변하고 주고 있다.(그림33 참조) 이는 인위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이 서로 어우러져 차경과 유식으로써 사물을 관찰하고 사색하여 이치를 터득할 수 있는 유리한 입지를 선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33〉〈도산서원〉

조선시대 사림의 유가 지리관적 입장은 성리학을 근간으로 한 예(禮)는 조영물에 영향을 주었다. 『예서(禮書)』에서는 의례 때 방위 설정에 있어서 기준 좌향(坐向)은 남향을 전제로 하며, 『가례서(家禮書)』에서도 의례의 장소가 되는 주 건물은 반드시 '남향을 원칙' 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중심 건물이 남향을 하게 되면 자연의 절대 방위와 예서의 각 의례에서 나타나는 동서남북 방위는 서로 일치하게 된다. 또한 『주서비오영조택경(周書秘奧營造宅經)』에는 "주택의 왼편으로 흐르는 물을 청룡이라 하고, 오른편에 큰 길이 나있는 것을 백호라 하며, 집 앞에 연못이 있는 것을 주작이라 하고, 집 뒤에 구릉이 있는 것을 현무라고 하여, 이러한 지형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 만약 땅에 이러한 상(相)이 없으면 흉하다... 무릇 택지는 평탄함을 지향하거니와 그러한 지형을 양토(梁土)라 한다. 뒤가 높고 앞이 낮은 택지를 진토(晉土)라 하는데 이러한 곳에 살면 모두 길하다.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은 택지

를 노토(魯土)라 하는데 이러한 곳에 살면 부귀하게 되고 현인이 출현하게 된다. 앞은 높고 뒤는 낮은 택지를 초토(楚土)라 하는데 이러한 곳에 살면 흉하다. 사면이 높고 중이 낮은 택지를 위토(衛土)라 하는데 이러한 곳에 살면 처음에는 부유하지만 나중에는 가난하게 된다." 라고 하였다. 이 내용을 보면 주택을 중심으로 왼쪽에 물(청룡), 오른쪽에 길(백호), 앞쪽에 연못(주작), 뒤쪽에 구릉(현무) 등 동서남북의 사신방위에 대한 것과 집 자리인 터를 설명하고 있다. 택지에는 양토, 진토, 노토, 초토, 위토 등 5가지의 지세로 구분하였으며 그중 초토와 위토를 피하여 상택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퇴계의 제자인 정구(鄭逑)는 자신의 회연초당을 상택하면서 열거한 『한강선생속집(寒岡先生續集)』에는 유가 지리관에 의거한 입지특성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도시(城內)로부터 멀리 떨어져있고 선영을 가까이 모실 수 있다. 뒤로는 구릉을 등지며, 앞으로는 냇가를 끌어안는다. 오른쪽으로는 여염(閭閻)에 접하며, 왼쪽으로는 맑은 못에 임한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온갖 돌들이 있으며, 무성한 숲과 수풀이 있다. 나무하며 소 기르는 둘 다에 편하고, 약초 캐며 낚시질하는데 알맞다. 뭇 산들이 에워싸고 두 물줄기가 만나 흐른다. 산등성이와 언덕은 빼어나게 절경이며 교외의 들판은 넓고 평탄하다. 남향하고 물줄기를 등져서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서늘하다. 습기는 벼농사에 알맞고 넉넉한 땅은 누에쳐서 길쌈하기에 알맞다. 남쪽마을에서 찾아오고 서쪽산악에서 진경을 찾는다." 정구의 유가 지리관적 계획원칙에서 성리학자들의 입지선정과 특성 등을 찾아 볼 수 있으며 천석(泉石)과 풍광, 산등성이와 논밭, 숲과 냇물, 벼농사와 길쌈, 은둔과 소요, 강학과 제의가 어우러지는 장수와 유식하는 장소가 필요한 것이다. 이는 은거하면서 수양하며 배산임수하는 입지와 형국, 산세, 지세 등을 고루살피며 조영물에 적용되었다. 그러므로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의 건축사고관에는 장수하며 유식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영건한 것이다.

② 정자공간의 구성원리

정자건축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과 합일을 중요시여기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정자 계획과정에서 볼 때 일차적으로 먼저 고려되는 것은 입지이며, 그 다음이 주영물의 주변 환경이다. 또한 선비들의 정신세계가 건축에 반영된 예는 삶의 복잡한 내용을 수용해야 하는 살림집에서보다는 선비들의 학문과 휴양을 목적으로 지은 정자나 별당, 서당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여기서는 모든 불필요한 군더더기가 사라지고 가장 절제되고 축소된 공간이 남아 있고 그 공간은 주변의 자연경관과 일체가 된다. 『금화경독기(金華耕讀記)』에는 "임원(林園)에 자리를 장만하여 집을 세우려 하는 사람... 정자의 제도는 소박한 것이 좋고 농염한 것은 좋지 않으며, 정갈한 것이 좋고

화려한 것은 좋지 않다. 산언덕을 등지고 물을 내려다보는 곳에 짓기도 하고 혹은 주춧돌 기둥 난간이 반쯤 물속에 잠기도록 한다. 산언덕과 숲속에 사는 사람은 그때 홀연히 수국(水國)에 사는 생애임을 깨닫게 된다. 겸하여 흉금을 씻고 성정(性情)을 닦는 이익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절제되고 축소된 조영물에 연지를 만들게 되는데 "집의 뒤편에 동산을 만들어 과실나무를 심고 집의 좌우편에는 남새밭을 만들어 채소를 심는다. 집의 남쪽 한 면을 비워두고 위아래에 연못을 파되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크게 만든다. 작은 연못에는 연을 심고 큰 연못에는 물고기를 기른다" 라고 하였다.

『고사십이집(攷事十二集)』에는 "연못은 세 가지 좋은 점이 있다. 물고기를 기를 수 있고, 밭에 물을 댈 수 있으며, 또 흉금을 상쾌하게 씻어줄 수 있다. 그러나 집에 바짝 근접한 곳에 큰 연못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모름지기 위아래에 두 개의 연못을 만들어야 한다. 위에 만든 연못은 사방이 5,6보쯤 되는 규모로 벽돌과 돌을 쌓아 만들고, 부용과 물풀을 심어서 지팡이를 짚고 나막신을 신은 채 소요할만한 장소로 만든다. 아래에 위치한 연못은 땅의 형편에 따라서 넓이를 조절하는데 크면 클수록 좋다. 이 연못은 도주공(陶朱公)의 물고기를 기르는 법을 모방하여 만드는 것이 좋다." 라고 하였다. 이는 연지의 장단점과 외부공간의 주변상황에 대한 의미와 축조방법을 설명하였다. 조선의 문신 권문해(權文海,1534~1591)가 1580년(선조 24)에서 1591년까지의 일상사에서 국정의 대요 등 주변의 일들을 기록한 일기 초간일기(草澗日記)에 나타난 초간정(草澗亭)의 조영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입지가 될 만한 곳을 찾고 기존에 존재한 메우고 축대를 쌓아 평지를 만든다. 이후 소나무를 심고 새로운 연지를 만들어 물을 끌오 대고 그 주변에 괴목을 심는다. 초간정 후면에 계단을 쌓고 뚝을 만들어 다리를 축조한다. 이후 큰 돌 몇 개로 흐르는 물살의 충격을 막고 작은 돌로 그 안을 견고히 하였으며 그 안에는 물고기를 풀었다. 이러한 초간정 유식공간은 누(樓)로서 더욱 극대화한다. 누공간은 기본적으로 지면보다 높아서 공중에 떠있는 듯한 기분을 연출하며 넓은 시야를 확보하게 된다. 또 연지의 근처에 있거나 구조체가 연지 안으로 들어가 그 위에 공간이 조영되었을 경우 마치 물 위에 떠있는 듯한 기분과 낚시를 하면서 뱃놀이를 즐기는 착각을 하게 된다. 또한 지면보다 높은 위치에서 사방으로 내려다 볼 수 있어 우월성마저 느끼게 해준다. 그러나 누각의 본래 의도는 권위나 우월성에 충족하고자 건립한 것은 아니며 세속에 살더라도 맑고 깨끗한 마음을 늘 지니게 하는 성리학적 차원의 자연관과 유식의 건축적 사고관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정자건축의 공간을 이루는 최소단위는 온돌과 마루이며 2x1칸, 3x2칸, 3x3칸 등 조촐한 구성을 이룬다. 그러나 대개 정자 공간의 편액에는 당(堂), 정

(亭), 누(樓)라는 각각의 이름을 갖는다. 이것은 각각의 공간이 독립된 역할이나 성격을 가지고 그 공간의 특성을 표명한 것이다. 이는 온돌과 마루가 한 조영물속에 공존하는 것이며 주변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내부에서 외부로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내부공간에서의 이중적 구성은 선비가 학업에 임하는 자세에서도 나타난다. 『예기(禮記)』에 따르면, "대학의 교육은 사철에 따라 바른 학업이 있는데, 즉 봄, 가을에 예악(禮樂)을 가르치고, 여름, 겨울에는 시서(詩書:시)를 가르치고, 봄에 독송(讀誦:읽기)하고 여름에 현가(弦歌:노래하기)하는 따위가 그것이다. 물러가서 휴식할 때는 반드시 연거(燕居)의 학(學)이 있다... 또 휴식할 때 널리 사물의 정리(情理)의 의부(依附)하는 바를 연구하여 그 실(實)을 시험하는 일이 없을 때는 시를 풀어 응용할 수 없는 것이다. 또 물러나서 쉴 때 여러 가지 잡다한 복제를 직접 보고 그 만드는 법을 연구하거나 배우지 않는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예(禮)를 해석하고 응용할 수도 없는 것이다. .." 라고 하여 선비의 교육은 계절마다 각각 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 봄, 가을에는 예악을 배우고 여름, 겨울에는 시를 배우며 봄에는 책을 읽고 여름에는 현가를 배우는 것이다. 또 휴식할 때에 자연의 사물을 보고 본성을 연구하는 것을 말을 한다. 이에 『예기(禮記)』, 「학기(學記)」에 따르면 "선생이 때때로 학생의 하는 바를 관찰하고도 일일이 알려서 말해주지 않는 것은, 학생으로 하여금 그 마음을 전일하게 하여 뜻하는 바의 학업에 돌려 발분 노력해서 스스로 진리를 터득하게 하기 위해서다." 라 하였다. 따라서 선비들은 항상 자연의 사물과 접하여야 하며 장수와 유식을 혼용한 강학방식이었다.

이러한 이중적인 장수와 유식공간 내부에는 극도의 절제되고 조촐한 구성을 이루고 있다. 담양 면앙정을 설명하기를, "정자는 3칸으로 되었다. 긴 들보를 걸었는데, 들보 길이가 도리의 두 배가 되어서 그 안을 보면 반듯하고 텅 비었으며 단정하고 바르니 그 바르고 단정함이 더욱 드러난다. 4면을 비우고 난간을 둘렀다. 난간 밖은 지형이 조금 낮으며 서북쪽이 급하게 떨어졌다... 안에는 서책으로 가득 채웠다." 라고 하여, 온돌 사방에 텅 빈 단정한 공간이며 마루에는 난간만을 둘렀다. 온돌 내부에는 서책이 가득하였으며 작은 안궤(案几)를 두었다. "천연의 모습을 지닌 안궤를 실내 안쪽 가에 하나 놓아 둔다. 동향으로 놓되 창이나 난간에 바짝 대어 놓아 바람과 햇볕에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안궤 위에는 낡은 벼루 하나, 필통 하나, 필가(筆架)하나, 수중승(水中丞) 하나, 연산(硏山) 하나를 올려놓는다. 옛사람이 벼루를 비롯한 도구를 왼편에 놓은 것은 먹물 빛이 반사하여 눈에 번쩍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등불 아래서는 더욱 그렇다. 안궤 위에는 서책과 서진(書鎭)을 각각 하나씩 놓아둔다..." 라고 하였다. 이렇게 실내에는 작은 안궤만을 두고 정결하고 소박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현란하거나 곱게 꾸민 시도가 보이면 규중

여인의 방이 되는 것이다.(그림34 참조) 이러한 실내공간에 "다호(茶壺:차를 담는 단지)나 술 주전자를 들고서 정자에 이르러 난간에 기대어 낚시대를 드리우고 가시연밥의 껍질을 벗기고 줄풀을 끓여 먹는다... 겸하여 흉금을 씻고 성정을 닦는 이익도 얻을 수 있다. 이런 것 모두가 산에 사는 사람이 재물을 모으는 경제 방법이다. " 라고 하여 이 공간에서 술이나 다도를 즐겼다.

〈그림34〉 김홍도, 〈사인초상〉

이에 『준생팔전(遵生八牋)』에는 "측실(側室) 한 칸을 서재 옆에 마련한다. 다료(茶寮) 안에는 다조(茶竈:찻잔 여섯 개)하나, 주전자 두 개, 다구(茶臼) 하나, 먼지를 털고 닦는데 쓰는 포(布) 각각 하나, 숯을 넣어두는 상자 하나, 불쏘시개 한 개, 부젓가락 한 개, 화두(火斗) 한 개, 다반(茶盤) 한 개, 다탁(茶卓) 두 개를 놓아둔다. 동자를 시켜 차 끓이는 일을 전담하도록 하여 긴 여름날 청담(淸談)을 나눌 때와 추운 밤 외로이 앉아 있을 때 시중들게 한다." 라 하였는데, 여기에는 서재 옆 측시에 다료공간이 보인다. 그 안에는 다조와 주전자, 다구, 포, 숯, 불쏘시개, 부젓가락, 화두, 다반, 다탁 등이 보관되어 있으며, 손님 접객시 사용하였다. 따라서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은 스스로 이치와 진리를 터득하기 위해 조영물 주변에 인위적이고 자연적인 요소를 공간 내외부에 조영하였다. 이는 군자가 스스로 터득하기 위한 수양시설을 자연에서 찾아 생활공간에 끌어들인 것이다.

– 우리 민족의 기질과 성향을 정자건축에 어떻게 표현하였는가?

정자건축에 반영된 우리 민족의 기질과 성향은 바로 자연주의이다. 앞서 전술한 우리의 지형적 특성과 사시사철 계절의 변화라는 기후적 영향으로 우리에게 자연은 삶의 일부이자 이상인 것이다. 우리의 정자를 포함하여 한국의 이

상적인 정원, 나아가 한국의 건축 모두가 이상으로 지향한 공간을 표현한 시조가 있다.[17] 바로 조산시대의 무명시인이 읊은 시조에서 정자건축의 이상공간을 노래했는데, 여기에서 우리 민족의 기질과 성향이 잘 표현되었다고 생각된다.

십년(十年)을 경영(經營)하여 초가(草家) 한간을 지으니
반 간(半間)은 청풍(靑風)이요 반 간(半間)은 명월(明月)이라
청산(靑山)은 들일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시인은 첫째, 터잡기로 거대한 자연의 한 지점을 택하였고, 둘째, 짓고자 한 건축공간은 최소 단위인 한 칸의 소박한 초가였으며, 셋째, 지어진 한 칸 초옥의 반 칸은 청풍으로, 나머지 반 칸은 명월로 채워졌다. 넷째, 청풍과 명월로 채워진 초가의 앞뜰과 동산은 바로 자연의 들과 내, 산으로서, 이들은 태초부터 있어왔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본래의 자연이다.
청풍과 달빛은 본성대로 스스로 움직여 초가의 내부 공간을 채웠으나, 청산은 움직임이 없는 자연의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 제자리에 둘러 있는 것이다. 무명시인이 이루어놓은 초가 한 칸의 공간을 청풍과 달빛이 스스로 채워 준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채워 줄 수 없고 또 움직일 수 없는 산과 들, 냇물 등등의 자연은 본래대로 제자리에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본래 자리에 있는 자연의 모습을 자연에 녹아 든 사람의 눈을 통하여 마음에 가져오고 자연의 상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정원과 정자를 꾸미는 마음으로는 일정한 공간에 자연의 모든 것을 갖추려 하지 않고, 자연 본래의 모습을 빌려오는 차경 원리를 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마음가짐이다. 이와 같은 정자의 모습은 방연재(訪蓮齋)가 그린 〈귀거래도(歸去來圖)〉에서 잘 보이는데, 산과 물 사이 아늑한

〈그림35〉 방연재, 〈귀거래도〉

17) 송순(宋純), 『俛仰亭雜歌』에 나오는 시조이다. 그러나 김천택(金天澤)의 『청구영언(靑丘永言)』에 작가 미상의 시조이라고도 한다. 주남철, 앞의 책, p.69.

평지에 초가 한 칸이 자리 잡고 있고, 한 선비가 단정하게 바깥을 응시하고 있다. 혼잡한 세속과 떨어져 산수와 벗하며 사는 은사의 정자로, 주거에서 산수를 중시하는 전통을 잘 보여준다.(그림35 참조)

–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우리만의 고유한 정자건축의 특징은 무엇인가?

① 중국의 정자

〈그림36〉 〈이화원〉

중국 정원의 특색은 자연산수의 모양을 재현하는데 있어서 온갖 화초, 짐승, 물고기, 기암괴석, 연못, 정자, 언덕 등을 인공으로 조성하는데 있다. 북경 이화원(頤和園)에는 거대한 인공호수 곤명호(昆明湖)가 있다. 호수라기보다는 바다처럼 광활해 보이지만 인공으로 만들어졌다. 곤명호 북쪽에 있는 약 60m 높이의 만수산(萬壽山)이 있는데, 이는 곤명호를 조성할 때 파낸 흙을 쌓아 만든 인공산이다.(그림36 참조) 각종 전각과 사원, 회랑 등 3000여 칸의 전통 건축물은 모두 이 인공산의 남쪽 기슭을 따라 곤명호를 바라보며 배치되어 있다. 이처럼 중국의 정원의 개념은 인공적으로 만들되 규모 역시 우리와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화원에는 중국에서 제일 크다고 알려진 곽여정(廓如亭)이 있고, 사면이 모두 호수와 면해 있는 지춘정(知春亭), 긴 회랑 중간에 놓여 있고 춘하추동을 의미하는 유가정(留佳亭), 기란정(寄瀾亭), 추수정(秋水亭), 청요정(淸遙亭) 등의 정자가 있다.(그림37 참조) 특히 곽여정은 중층지붕의 정자로서 창덕궁 후원에 .있는 존덕정(尊德亭)과 비교가 된다.(그림38 참조) 두 건물 모두 중층 형식의 지붕을 하면서 내부는 모두 통칸으로 되어 있고, 호수와 연못에 인접하여 있다는 점이 공통이다. 그러나 곽여정은 엄청난 크기의 것으로 아담한 우리의 정자와는 느낌이 전혀 틀리다. 같은 물가에 있

〈그림37〉〈이화원 곽여정〉

〈그림38〉〈존덕정〉

더라도 곽여정은 물과 땅의 자연을 지배하듯 우뚝 평지 위에 서있지만, 존덕정은 건물의 반 정도가 물가로 나와 있어 조금이라도 자연과 가까워지려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중국의 정원에는 중요한 전통사상과 문화가 담겨있다. 첫째는 지형의 자연성이다. 일반적인 건축물과는 달리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칙이 없이 주변 사물과의 조화에 중점을 두었다. 즉 정원 안의 정자들은 크기와 높낮이, 거리 등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배치하여 자연스러우면서도 끈기지 않는 분위기를 살리고 있다. 주로 정원에 배치하는 건물은 대(臺)와 사(射)로서, 대는 흙으로 높이 쌓아 '사방을 바라볼 수 있는 높은 것(觀四方而高者)'이며, 이는 원래

구름의 변화를 통해 길흉을 점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대에 세워진 것이 사(謝)이다. 이는 나무로 기둥을 세워 만든 건축물로 이른바 정자의 전신이 되며, 물의 흐름에 따라 곡선으로 지은 것이 곡사(曲謝)이다. 곡사는 물 위의 다리, 조그만 섬, 복도 등으로 이루어져 물을 따라 구성되는데, 이른바 "높은 곳에는 정(亭)과 대(臺를) 세우고자 하며, 낮고 파인 곳은 못과 늪을 판다(高方欲就亭臺 低凹可開池沼)"라는 내용이 그것이다. 둘째로는 가경(假景)으로 주변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빌려오는 것이다. 이화원의 경우 정원 밖의 옥천선(玉泉山)과 옥봉탑(玉峰塔)을 배경으로 곤명호(昆明湖)에 배치시켜 호변에 버드나무, 연못 속의 연못 등과 함께 호광산색(湖光山色)을 자아낸다. 셋째는 고적하고 여유로운 이른바 유심한 의경(意境)이다. 중국의 정원은 숨겨져 있는 함축미를 갖추고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는 대부분 꼬불꼬불하면서도 숲으로 사라지는 통로등을 통해 형성된다. 예를 들면 소주(蘇州)의 졸정원(拙政園)은 깊은 대숲과 산허리를 돌아드는 물줄기가 점차 꽃 숲 사이로 사라지는 모습으로 은은한 정서를 잘 자아낸다.(그림39 참조) 넷째로 동식물의 적절한 배합이다. 예를 들면 커다란 누각 곁에는 오래된 잣나무를 심고, 작은 정자 옆에는 화초들을 배열하며, 연못에는 물고기, 거북이, 자라, 새우 등을 기르는가하면, 숲속에는 다람쥐, 사슴, 새 등을 길러 정원이 지닐 수 있는 시각, 미각, 청각의 즐거움을 한껏 누리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정원이 다른 문화권과의 차이점은 공간이 다른 예술장르와 결합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정원은 자연풍광과 역대의 아름다운 시, 그림, 글씨 등이 어우러져 있어, 중국의 산수 속에서 생명력을 얻으며 방전해 온 예술의 동시에 접할 수 있는 산수문화의 절정을 보여준다. 액자, 대련, 벽화, 조각 등의 예술품들을 적당

〈그림39〉 〈졸정원〉

한 경치에 알맞게 배치하여 정원의 예술적 품격을 한층 더한다. 때로는 정자 등에서 벌어진 역대의 시화, 연회 등에서 이루어진 작품들을 목판에 새겨 걸어, 공간과 문학, 회화와 서예가 어우러지는 독특한 정원문화를 이룩하고 있다.

중국의 정자에서는 시각적으로 어떻게 보이는가, 그리고 보여 지는 가에 의한 위치적 공간구성 의도는 중국정자의 단위공간을 위요하는 경계에 대한 독특한 접근방식을 보여주고 있다.[18] 이러한 예는 소주 망사원(網獅園)의 〈월도풍래정(月到風來亭)〉이 있는 정원에서 잘 볼 수 있다. 망사원은 소주에서 가장 작은 정원이지만 전형적인 청나라의 주택 정원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정자를 경물로 파악하여 정자에서 바라보는 풍광도 중요하지만, 정자를 바라볼 때 건축이 주변공간과의 조화도 잘 어우러졌는지를 함께 본다는 것이다.(그림 40 참조)

〈그림40〉〈월도풍래정〉

또한 정자건축에 있어서 지붕선의 표현에서 우리의 것과 다름을 알 수 있다. 졸정원의 천천정(天泉亭)(그림41 참조)과 경복궁 향원정(香遠亭)(그림42 참조)의 예를 살펴보면, 우선 건물의 평면이 각각 팔각형과 육각형으로서 지붕이 모임지붕이라는 점에서 같지만, 사방으로 뻗어 나온 지붕선이 다르다. 즉 위로 치솟는 듯한 중국의 지붕선은 대지의 웅장함을 상징하는 힘이 있지만, 우리의 지붕선은 건물 배경에서 보이는 산세의 곡선에 일부러 맞추어서 계획한 것처럼 부드럽고 단아함이 보여 진다. 결국 한국의 누정은 중국에 비해 건축양식적인 측면이나 공간특성, 경관처리에 있어서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누정은 건축양식에서 추녀선이 하늘로 치켜올라 간다든지 기둥에 붉은

18) 한동진, 『조선시대 정자건축의 의미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1995, p.54.

칠을 한다든지 그밖에 창호에 넣은 문살무늬와 난간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그림41〉 〈천천정〉
〈그림42〉 〈향원정〉

② 일본의 정자 – 茶室

일본에서는 한국만큼 누정이 발달하지 않았으며 누정의 경관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 한국을 외부 지향적이라고 한다면 일본은 내부지향적인 경향을 보인다. 한국에서는 외부의 자연경관을 중요시하는데 비해 일본은 차실(茶室)이란 좁은 공간 안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을 즐기는 경향이 있다. 또 정원을 만들더라도 자연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정원 속에서 느끼며 사는 양식이다. 물론 일본 정원에서도 차경기법을 사용하여 외부의 자연

경관이 마치 정원의 무대배경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한국의 정자에서 자연경관이 주된 역할을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다실의 사상적 배경은 "춥고 여윔, 낙엽지고 추워진다" 라고 하여 이는 부정 보다는 긍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현미(幽玄美)를 심화시켜 말라 얼은 경지이다. 이는 '검소' 의 이념과 '소박' 의 이념으로 나타나면서 호화로운 서원이나 정원 대신에 '한 잔의 차에 진미가 있음' 을 깨닫는 철학의 공간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조선의 은둔자의 소박함에서 고대 중국의 성현을 모방한 경지의 획득을 바탕으로 한 정자건축의 사상과는 달리, 일본의 다실은 완성된 예술로서의 화려함의 극치를 단지 2장의 다다미방에서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실은 전원적, 산수의 정취를 표현 주제로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도시적, 문화적인 것이고 따라서 그 근원은 사치스러움에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사상적으로는 검소와 소박이라고 하는 부정의 미학을 추구하면서도 건축적으로는 일반도시주택으로 확산되고 재료와 가법으로도 호사스럽게 변화하는 등 궁극적으로는 원심적 미학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조선의 정자가 지닌 외부로의 개방을 통한 관념세계로의 몰입을 지향하는 인식체계와 상이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보다 심미적 탐구에 몰두함에 따라 나타난 다양한 평면 변화로 이어지는데, 여기서 발견되는 특성은 '검소' 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작' 은 될 수 있는 한 작게 하고 정신집중을 하기 위해 이용 중에는 문을 완전히 폐쇄하며, 평면도 점차 4장반에서 4장, 3장, 2장으로 작아지고 결국 1장대목이라고 하는 '최소' 규모로 좁아지고 말았다. 그렇게 작은 공간 안에서 벽감, 화덕, 입구, 중주(中柱), 중판(中板)의 조합이 더해져서, 겨우 3평도 안되는 작은 공간 안에서 100에 가까운 무궁한 변화가 있었다.

우리의 정자는 사상적 배경이 엄정한 유교적 정형성으로 인해, 자유로운 평면형식을 취해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에는 일률적인 평면형식으로 나타나 안정감을 주는데 반해, 일본의 다실은 다다미의 수나 벽감, 창, 천장 등의 비정형 구성을 함으로써 안정감이 부족함을 느끼기도 한다. 이는 본래 다실에서 요구하는 소박, 정숙감과도 상반되고 있다. 표현형식으로 우리와 같이 민가에서 사용하는 수법을 그대로 사용한다. 대나무, 짚, 흙, 목재, 나무껍질 등 자연 그대로의 재료가 사용되었고, 자연그대로의 조용하고 아늑한 중화적인 색채를 사용함으로써 소박과 고요함을 만드는데 일조를 한다. 〈그림43〉는 일본 3대 정원인 이시카와현(石川懸)의 겐로쿠엔(兼六園)[19] 정원 안에 있는 초가로 된 정자인 유가오테(夕顔亭)이다. 일본 다실의 기본특성은 회유식(回遊式) 정원에서 주로 나타난다. 즉 정원의 감상을 위하여 가장 전망이 좋거나 가운데 부분에 설치되는 간소한 건물이라는 특징이 있고, 감상로를 따라 오른쪽으로 걸어가며 볼 수 있게 배치된다는 점, 기본적으로 즙(葺:짚)지붕을 설

19) 겐로쿠엔은 1676년 5대 영주 마에다 쓰나노리가 렌치정(蓮池亭)을 지어 그 정원을 렌지테이(蓮池庭)라 불렀던 것이 최초이다. 원래는 개인정원이었으나 1874년에 일반에 공개되었다.

〈그림43〉〈겐로쿠엔〉, 〈유가오테〉

〈그림44〉〈겐로쿠엔〉, 〈시구레테이〉

〈그림45〉〈겐로쿠엔〉, 〈시구레테이 다실정원〉

치하고 다도 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은 벽체를 모두 폐쇄된다는 점, 휴식하되 움직임을 최대로 절제한다는 점이 특징이다.(그림44, 45 참조) 여기서 유람을 하는 동안 다실을 보기 위해 배치에 신경쓴다는 점은 중국 정자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정자에서 보이는 화려한 지붕선이나 치목기법 등 첨경(添景)의 경물로서 건축되지만, 일본은 간소한 형식에 비정형적인 평면과 볼륨, 소박한 지붕재료, 그리고 다도와 명상의 장으로서의 기능이 우선시된다는 점에서 차별이 있다. 일본 오까야마(岡山) 코라쿠엔(後樂園)[20] 안에 있는 엔요테이(延養亭)는 번주가 손님을 맞이하는 정자를 중심으로 임천회유식 정원으로 꾸며서 주변의 오카야마 성과 산을 풍경으로 삼고 있다. 에도 시대는 엔요테이를 다실, 정원을 후원으로 불렀다가 1871년 이 명칭을 고라쿠엔으로 개칭했다고 전해진다.(그림46 참조)

〈그림46〉〈코라쿠엔〉,〈엔요테이〉

동아시아의 정원의 특색에 있어서 일본은 소규모적이고 꾸밈이 섬세하고 작게 축소된 자연이지만, 중국은 거대하고 대범하며 기계적이다. 이와는 다르게 한국의 정원은 자연과 분리되지 않은 자연의 연장이다. 자연의 연장이라 함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지각성을 배제하여 자연으로 회귀시켰다는 점을 의미한다. 일본인들은 그들의 '꾸밈의 자연' 이야말로 인간과 자연의 균형을 이룬 것이라고 인식했으며 중국은 다시 '만들어진 자연' 을 균형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꾸미는 인간, 만드는 인간의 솜씨 즉 '인간에 의한' 이란 개념들을 제거하여 자연과 인간이라는 두 대립구조를

20) 일본 3대정원의 하나인 이곳은 1686년 공사가 시작돼 14년 뒤인 1700년에야 완성된 에도시대 대표적인 지천 회유식 정원이다. 코라꾸엔이라는 이름에는 근심을 먼저 하고 나중에 즐거움을 누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으며 오랜 기간 이께다 가문의 정원으로 이용되다가 1884년 오까야마현에 귀속되면서 일반에게 공개되었다.

없앴기 때문에 '균형' 이라는 인식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나치게 꾸며 놓은 어떠한 것도 균형감각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한국의 미학적 개념이다.[21] 산속과 물가에 위치한 정자는 바로 이러한 균형의 개념을 한마디로 설명하는 건축이다. 즉 정자를 주위 자연에 어울리도록 세밀하게 꾸밈으로써 인위적이지 않고, 황량한 대지 위에 어울리도록 화려하게 지어진 건축물이 아니다. 우리의 정자건축은 자연 속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가장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진 소박한 건축물일 뿐이다.

21) 김영기, 앞의 책, p.181.

제 3부
종합

1장. 정자문화에 드러나는 창조적 사고방식

1절 우리의 디자인 개념과 제작자의 조형의식

① 장소성

누정건축에서 일차적인 행위는 경관을 감상하는 일이다. 관찰자가 자연 등의 감각적 교류에서 자아와의 합일을 찾는 매개자로서 역할이 바로 정자이며 그것이 장소이다. 즉 훌륭한 환경 이미지를 가진 정자는 구 소유자에게 정서의 안정을 가져다주며, 그 안정을 추구하는 자아인식의 공간이자 자기와 외부환경 사이에 조화를 이루는 관계를 확립해주는 것이다.

정자는 현존하는 전통건축물 중에서 최소규모의 단위건물로서 건축의도와 공간연출의 관계를 가장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는 대상이다. 자연합일이라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건축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정자는 타 건축과는 달리 건물이 위치하는 장소가 곧 건축의 주된 개념이 된다. 정자는 이러한 장소성을 기본으로 하여 주위와 조화를 이루는 조형 및 개방성, 연속성을 필요로 하여 공간의 차단을 극도로 억제하는 계획기법을 사용한다.

우리의 전통적 건축관이 자연을 거슬리지 않고 그 안에 동화하려는 경향을 띠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자연주의적 입장을 가장 강하게 표출하는 건축물이 바로 정자이다. 정자는 건축계획과정에서 볼 때 자연의 탐색이 우선되며 그것은 가장 적합한 장소를 찾아내거나 혹은 적합한 장소로서 자연을 선정한다. 다시 말하면 정자의 성립과 장소성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전통건축의 장소성은 건축공간을 폐쇄된 내부공간과 그에 대응하는 외부공간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2차원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난 개념이다. 자연 안에서 인간이 더불어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건축이며 그것은 공간이기보다는 장소의 한정에 가깝다. 따라서 건축이 장소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성과 건축의 의도가 부합되어 나타난다.

정자는 천지 우주가 구체화된 자연 안에 인간이 머물고자하는 본연의 고귀한 심상을 드러내는 공간이다. 그러므로 정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일상과는 거리가 있다. 또 하나의 일상을 위한 장소, 즉 보다 형식에 치중한 삶을 위한 장소의 설정이 정자의 설립에 우선한다. 이는 자연을 무의미하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동양사상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인간은 그러한 자연을 택하고 그 안에서 정자를 통해 자연스럽게 동화되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자의 조영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정자의 장소성이다.

정자의 장소성은 정자가 위치한 장소 내에서 앞서 서술한 행위가 이루저지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장소성이란 정자의 유무를 떠나 행위자체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그러나 정자는 행위와 연관된 장소성의 개념만이 아니라 자연 속의 특정한 장소에 위치함으로서 자연과 어우러진 풍광을 보여주며 건립당시부터 이러한 의도 하에 조영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의 장소성은 행위가 일어나는 직접적인 공간으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조경요소 즉 경물(景物)로서의 정자이다. 경물로서의 정자는 공간 내에서의 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따라서 경물로서의 정자는 정자의 일반적인 장소성의 개념과는 다르다.

정자의 장소성은 개념상 형이상학일 수밖에 없지만 실존으로서의 정자는 확인 가능한 것이다. 현존하는 정자가 건립되어 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장소성의 실례를 살펴보면, 정자가 세워진 곳은 내부에서 행위가 일어나든 아니든 간에 강한 장소성을 띠고 있다. 현존하는 정자가 건립된 장소를 살펴보면 강이나 계곡에 있는 정자가 있고, 못에 세운 정자, 산마루나 언덕 위에 세운 정자, 집 안에 세운 정자 그리고 모정(茅亭)이라고 마을의 어귀에 세운 정자가 있다. 이러한 정자 내에서 일어나는 행위는 장소와 큰 관계없이 대부분 풍류, 관망, 휴식 등이 주가 된다. 이러한 행위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자에는 장소성과는 별도로 부수적인 시설이 가설된다. 천자가 갖는 고유의 장소성에 의해 우리나라에 건립된 정자는 가장 원초적인 건축형태를 정형으로 삼고 있지만 내부 기능의 충족을 위해 부수적인 시설이 가설된다. 이러한 부수적인 시설은 장소성의 개념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공간연출의 요소로 사용되기도 한다. 부수적인 시설의 설치로 공간연출한 대표적 예가 난간이다.

② 개방성

정자에는 내부와 외부 사이에 차별이 없다. 공간은 본래부터 있고 처음부터 있어왔으며 영원히 있는 것이다. 공간은 무한하며 무궁무변하다. 정자에 방이 있을지라도 방을 막는 벽은 공간 중간에 칸막이를 친 것에 불과하다. 내외부 사이의 무차별은 자연과의 일체라는 개념을 가르친다. 여기에는 비움의 미학이 있다. 자연과의 일체와 비움이 합침으로써 공간적 무차별이 이루어진다. 내외부 사이의 무차별은 전이공간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정자안과 바깥의 자연은 전이공간이 개입하면서 공간의 켜가 겹쳐진다. 전이공간은 곧 처마 밑 툇마루공간이다. 이러한 겹쳐지는 공간은 한 가지 상태만을 갖지 않고 내부와 외부의 모호한 다질화된 공간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정자의 기본 개념인 자연과의 적극적인 교류, 즉 개방성은 궁극적으로 건축이 지니는 필연적인 공간적 한정성과 대립하게 된다. 이를 극복하고 보다 조화로운 자연과의 동화를 위해서 전이공간의 구성 요소인 난간이 요구되었고, 이로써 개방적이면서 공간적으로 한정되는 독특한 정자의 계획기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연에 대한 무한적인 확산이라고 하는 정자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는 구조적 해결이 될 수 있었다. 난간에 의한 한정

은 폐쇄된 벽체나 창호에 의한 한정 보다는 훨씬 개방적이다. 난간을 설치하는 일반적인 목적이 떨어지지 않기 위한 안전에 있는 것이지만 정자에 설치된 난간은 심리적 한정에 그 설치의도가 있다. 그것은 완전한 폐쇄이기 보다는 반 개방형의 개념으로 의도되었다. 개방과 폐쇄의 정도는 난간이 들려진 정자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와의 관계에서 설정된다. 정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보다 초월적인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라면 당연히 정자는 이를 표출하게 되고 결국 난간의 조형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정자의 장소성을 이루는 기본 인자인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가 그대로 정자의 공간으로 연출되는 것이다. 또한 정자를 통해서 그러한 개념은 난간을 공간연출 요소로 부각시킨다.
완충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처마 밑 공간의 확대, 축소는 자연과의 적극적인 공간 확산 효과가 크므로 주위에 평난간이 둘러져 있을 때보다 공간 연출기법의 면에서 더욱 적극적인 공간 확산 방법으로 인식된다. 계자난간에서 계자각이 돌출되어 나타나는 운동감은 기둥 위 공포대의 외향적인 율동감과 함께 서까래와 부연 끝으로 이어지는 시각적 연속성을 유한한다. 따라서 계자난간은 평난간보다 외부공간의 확산과 시각적 연속성을 통한 주위환경과의 적극적 교류라는 측면에서 더욱 유리하므로, 정자는 물론 주택내의 정자라고 할 수 있는 상류주택의 누마루 등, 바닥에서 가시적으로 떨어진 누 건축에서는 거의 이러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2절 우리의 조형가치와 현대적으로 개선, 발전시켜야 할 점

① 자연 · 인간 · 공간의 완전한 결합체

정자는 인간적 척도의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건축으로 사람과 자연이 하나 되어 자연의 순리가 있는 공간이다. 정자에서는 나무에 날아들어 우는 새소리, 나뭇잎새소리를 들을 수 있고, 향기로운 꽃과 꽃향기를 찾아 날아드는 나비와 벌의 모습을 보며, 앞 내의 흐르는 물소리, 처마의 낙수소리, 창호지로 스며드는 달빛, 이들을 자연스럽게 바라보고 듣고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공간이다. 이것이 자연 속 정자의 구성 원리이며, 여기에는 우리 민족의 심성이 잘 담겨 있다. 정자는 시간의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건축적 장치로서 자연과 일체가 되는 소우주인 것이다. 정자는 신체의 감각을 통해 중재하는 공간으로 시각과 후각, 청각 등의 신체 감각을 통해 빛과 바람의 감촉, 소리, 향기 등 비가시적 요소와 그림자, 자연풍경 등 가시적 요소들에 의한 감각적 요소들이 결합되는 현상학적 공간인 셈이다.
정자는 신체의 움직임에 의해 단편적인 이미지들을 연속적으로 결합하면서 주체가 공간이 아닌 자연의 풍경이 되는 위상변화의 공간이다. 자연을 감상하기

위해 건축된 정자는 비움을 통해 자연을 향해 열린 공간이 되며 공간은 물리적 영역에서 결국 자연으로 확장된다. 결국 정자는 인간이 세계 내 존재로서 감각의 종합과 지각이 상호 얽힘으로서 다양한 감성을 느끼는데, 여기에는 공간의 영역이 물리적 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자연으로 확장되는 현상학적 공간을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데 적합한 물리적인 건축체계라는 점이다. 이와 같이 정자에서 보이는 입지와 주변 공간구성, 평면, 자연환경 등의 체계를 통해서 자연과 공간, 인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들이 잘 구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건축을 바라봄이 아닌 건축에서 바라봄의 건축

현대의 건축가들이 건축계획을 함에 있어서 그 특징 중 하나가 건축물 자체를 중요한 미의 감상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고, 따라서 건물이 어떻게 보여 질 것인가와 진입과정에서의 어떠한 감흥을 연출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작업을 한다. 그러나 정자의 조형적 가치를 생각해 본다면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즉 정자는 우리에게 감흥을 주기 위해 준비된 대상이 아니었고, 오히려 단지 머물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러 선비들이 정자에 걸려있는 시문이나 문집에서 밝혔듯이, 정자라는 건물자체의 아름다움이나 감흥에 대하여는 거의 표현하지 않았고, 주변의 경관을 노래하며, 정자를 지을 당시 본인의 심상을 밝히고 있다. 정자의 기술적 수준만을 판단해본다면 여타 다른 종류의 건물보다도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정자는 타인에 의해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혹은 공간의 기능성을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주인이 풍광을 즐기기 위해서 그리고 주인의 관점에서 지어진 것이다.

주변의 자연경관을 완상하기 위해 지어진 정자는 바라봄의 미학을 구현하는 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물론 바라봄은 주변의 경관을 말하는데, 특히 차경(借景)은 감상의 주요 수법이었다. 그래서 그 종류도 다양하여 옛 선일들이 차경을 설명하기를, “시인이 둘러두고 본 청산들 중, 멀리 있는 청산의 모습을 보고 바라보고 즐기는 것이 원차(遠借)이고, 앞 산(安山) 봉우리를 차용하는 것이 앙차(仰借)이다. 들판을 내려다보고 즐기는 것이 부차(俯借)이고, 바로 옆 경물을 차용하는 것이 인차(隣借)이다. 그리고 사절마다 변하는 모습을 그때그때 맞추어 보며 즐기는 것이 응시이차(應時而借)이다.”[22]라고 하여 경관을 감상하는 종류도 나열하였다.

③ 현대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할 요소

앞의 글에서 정자의 미적 가치와 디자인적 요소를 설명하였다. 대략 살펴보

22) 주남철, 앞의 책, p,70,

면, 정자가 세우진 곳의 산과 물의 모습과 달빛이나 바람소리 등 자연의 일부가 정자와 아우러지는 풍광을 담고 있는 미학적 가치, 강 주변의 풍광 좋은 곳의 정자는 선비뿐만 아니라 왕들에게도 태평시대의 생활 속 여유를 찾게 한다는 유희의 공간적 가치, 정자에서 바라보는 완상의 기능뿐만 아니라 서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교육적 가치, 은거하는 자의 조촐한 삶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선비문화 가치와 미의식, 신선이 머무는 신성공간의 초월적 가치, 음악의 공간인 정자를 통해서 옛 선인들은 풍류의 가치 등이었다. 이러한 가치와 미의식을 담은 똑같은 정자건축을 현대에 그대로 적용하여 재현할 수는 없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정자건축은 요즘도 농촌의 마을 입구나 아파트 단지 내 정자를 건축하여, 사람들이 그늘에 앉아 쉰다는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며 형태상 전통건축으로서의 맥은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현대 건축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단지 아쉬운 점은 옛 정자에서 엿볼 수 있는 인간적 가치와 미의식을 담은 디자인적 요소를 제대로 해석하고 현대에 올바르게 적용하고 있는 예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정자의 본질적 가치, 즉 장소성이나, 개방성, 자연환경과의 조화, 바라봄의 미학 등의 요소는 현대건축에서 건축가 나름대로의 해석과 디자인 통해 수정 보완해 나간다면 정자문화에 대한 올바른 표현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2장. 정자문화를 현대적 디자인 가치로 표현한 디자인 사례

1절 대표적인 전통 정자건축 사례

앞서 서술한 조형의식을 완벽하게 표현된 정자 사례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조형성을 찾기 위해 다수를 분석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정자의 종류도 다양해서 건축주가 관(官)일 경우 궁궐용과 관청용으로 크게 나뉘고, 민(民)일 경우 도 개인 별당용, 사정(射亭)용, 모정(茅亭)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궁궐용 누정은 휴식과 연회를 위한 단순 목적인데 반해, 관청용은 접객, 행사, 의례, 연회 등으로 쓰인다. 개인 별당용은 주택 내에 혹은 가까운 곳에 따로 정원을 만들어 조성하여 시작(詩作)이나 접객, 유희, 교육용으로 상시 사용하는 것과 동네 전체나 문중 또는 계원들이 모여 경승지 등에 건립하여 풍류를 즐기거나 사정으로 건립하는 경우도 있다. 또 농촌에는 모정을 지어 마을 사람들의 집회소나 농사철 휴식과 식사의 공간으로 쓰는 것들도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대표적 정자 사례 몇 가지를 들라면, 우선 창덕궁 후원에 있

는 부용정(芙蓉亭)을 들 수 있다.(그림47 참조) 부용정은 궁궐 내에 위치하여 왕의 완상용으로 지어져서 산 속에 지어지거나 강가에 지어진 일반 정자와는 그 유형을 달리하지만, 주산인 북한산의 산세를 감상할 수 있고 옥류천 지류의 물을 받아 인공적이지만 연못 위에 지어진 정자로서, 정자의 일반적인 디자인 원리를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부용정의 주 사용자도 국내 최고의 권력자인만큼 정자건축의 설계계획이나 치목수준 등이 타 정자에 비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선정하였다. 두 번째로 관청용으로 조선중기에 지어진 정읍의 피향정(披香亭)을 들 수 있다.(그림32 참조) 보물289호로 지정된 이 건물은 정자로서의 공간성과 함께 건축양식의 측면에서 상당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정자로서 이언적이 낙향하여 지은 월성의 독락당 계정을 들 수 있다.(그림28 참조) 이 정자는 단출한 모습이지만 정자의 입지나 외부 및 내부공간 구성 등 본 글에서 밝힌 정자의 구성원리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47〉 〈부용정〉

① 부용정(芙蓉亭)

부용정은 숙종 33년(1707)에 본래 택수재(澤水齋)로 지은 것을 정조 16년(1792)에 고쳐지으면서 부용정이라 하였다. 정면 3칸 측면 4칸 되는 아(亞)자형 평면을 기본으로 하였는데 남쪽에 자리 잡은 동산 쪽으로 평면의 일부를 돌출시켜 아자 평면의 변형을 이루고 있다. 정자는 운두가 낮은 장대석을 한 벌대로 쌓은 낮은 기단 위에 서있다. 기단 위에 다듬은 8각형 초석을 놓고 원주를 세우고, 주두와 익공(翼工) 2개를 놓아 굴도리를 떠받친 이익공, 겹처마 팔작집이다. 정자의 두 측면과 남면 기단 위에는 돌계단을 놓아 툇마루에 올라서게 하였고, 북쪽은 연못 속에 팔모 장주형 초석을 2개 놓아 두 기둥을 세웠다. 전면 창호들은 모두 접어 들쇠에 매달게 되어 있고, 안에는 우물마루를 깔고 중앙 1칸과 못쪽 1칸을 모아 2칸을 주변 칸과 다르게 꾸몄는데, 3면

에는 불발기 창호를 달았다. 불발기 모양은 8각교살, 원형의 구기갑살, 네모의 정자살 등 다양하다. 툇마루에 두른 난간은 연못 쪽은 계자난간이고 남쪽 동산 쪽은 평난간이다. 또 기둥마다 초서체로 한시들을 새긴 주련들이 걸려 있어, 이들 시구를 감상하노라면 저절로 시흥에 젖고 더더욱 부용정의 공간정서에 몰입하게 된다. 정자의 남쪽 낮은 동산은 단이 지게 흙을 파내어 고르고, 그 가장자리를 장대석으로 마무리하여 화계를 만들고 꽃을 심고 괴석을 담은 석함을 놓아 치장하였다. 부용정 북쪽의 장방형 연못은 세로 34.5m, 가로 29.4m로서 연못 가장자리는 장대석을 바른층쌓기 하였고 또 연못 가운데 장대석 바른층쌓기로 섬 주위를 마무리한 둥근 섬을 두었다.

부용정은 창덕궁 후원의 중심에 있는 부용지 남쪽에 북향하여 물 위에 세워진 다각형 정자이다. 이 정자는 다른 정자와는 달리 인위적인 자연환경 속에 건립된 것으로 우리나라 전통 건축의 계획기법을 확인할 수 있다. 부용지의 형태는 방형이며, 그 안에 위치한 가산(假山)은 원형으로 조성되어 "천원지방(天圓地方)"이라는 동양의 철리(哲理)를 기하학적으로 따르고 있다. 천지와 정토는 모두 우주의 개념과 상통하는 것으로 작위적인 자연 속에서 우주를 구체화한 것이다. 부용정은 인간이 천지, 즉 우주 안으로 들어가는 동양적인 건축계획 방법을 보여준다. 결국 부용정은 원형과 방형으로 이루어진 부용지, 즉 자연(천지)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전면이 돌출된 부정형의 다각형이라는 특이한 평면형식을 가지며 또 평면의 일부가 부용지 속에 걸쳐 있다. 이는 천, 지, 인의 3재(才) 합일의 순간을 건축이라는 실체로 보여준다.

부용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대체로 둘로 나누어진다. 일반적으로 정자에서 행해지는 완상, 독서, 풍류 등의 행위가 그 하나이며, 이러한 주 행위에 부수되는 행위가 있다. 먼저 만물을 포함하는 자연과 인간의 만남이며, 정자를 사용하는 주인과 객이라는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 있다. 이 행위의 주체인 군은 부용정 내에서 부용지와 그 너머에 위치한 자연을 바라보며 천지, 즉 자연과 동화되고자 한다. 또한 임금은 신하와 더불어 시문과 풍류를 즐기며 인간과 인간의 이루는 소우주를 형상화한 정자를 주위의 대자연과 조화시키면서 그 일부가 되게 한다. 따라서 공간의 한정요소인 난간은 자연-천지-우주를 향하여 무한정 열린 형태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가설된 난간은 한계의식의 부정을 연출하는데 유리한 계자난간이 선택되었다. 툇마루는 주로 내부공간의 주행위에 대한 부수적인 행위가 일어나는 동선상의 흐름을 담는 공간으로 한계의식을 강조하는 평난간을 가설하였다. 이상에서 계자난간은 공간 내에서 그 영역의 한계의식을 부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물리적, 개념적 확산을 위해 사용되었다.

② 피향정(披香亭)

피향정은 통일신라 정강왕(定康王, 886~887) 때 태산태수였던 최치원이 세웠다고도 하며, 광해군 때 현감 이지굉(李志宏)이 중건하고 현종 때 박숭고(朴崇古)가 중수하였다. 1715년에 현감 유근(柳近)이 피향정을 다시 중수하는데 이때 서까래와 기와를 바꾸고 연못을 파냈다고 중수기에 기록되어 있으며, 1856년에도 현감 이승경(李承敬)에 의해 전체적인 중수가 있었다.

이 정자는 정자의 앞뒤로 상연지, 하연지 두 개의 연지가 있어 꽃이 피면 주위가 장관을 이루고 연꽃의 향기가 정자에 가득하다고 하여 피향정이라 하였다. 피향정은 아래는 원형의 장초석을 받쳐서 높게 마루를 구성한 후 그 위에 두리기둥을 세워 만든 누각형식의 건물이다. 이 건물은 정면 5칸, 측면 4칸의 규모로서 정자로서는 매우 큰 규모이다. 평면은 외진주 안에 다시 내진주를 세워 공간을 구획하였는데 정면 3칸, 측면 2칸의 내진 주위로 사방에 돌아가며 퇴가 둘러진 형태이다. 기둥의 배치에 따라 평면이 내외진으로 나뉘어 있지만 내부는 모두 하나의 공간으로 터져 있다. 그러나 기둥에 인방이 끼워진 흔적, 천장이 우물천장일지라도 좌우 협칸에 다른 반자구성을 한 점 등을 미루어 거운데 온돌방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가구는 2고주 7량가(七樑架)를 취하였다. 공포는 초익공구조이며, 살미의 초각과 모습은 단순하면서도 유려한 조선 중기의 건축수법을 잘 유지하고 있다. 피향정은 사방을 개방하고 사면에 모두 퇴를 내어 계자난간을 시설했다. 앞 뒤 어칸에는 승강을 위한 돌계단을 설치하고 출입을 위해 난간을 시설하지 않았다. 앞쪽에 '피향정(披香亭)', 뒤쪽에 '호남제일정(湖南第一亭)'이라는 현판이 있다. 광한루를 호남제일루라 하면 호남제일정은 피향정이라고 흔히들 일컫는다.

피향정은 관에서 운영하던 정자로서 주변 경관이 뛰어나기도 했지만, 인공 연못을 조성하여 지방관이나 접객들에게 향연과 휴식을 제공하던 공간이었다.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내부에 방이 있어 겨울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조선후기 사람들의 정자 공간의 상징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지만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정자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③ 독락당 계정 (獨樂堂 溪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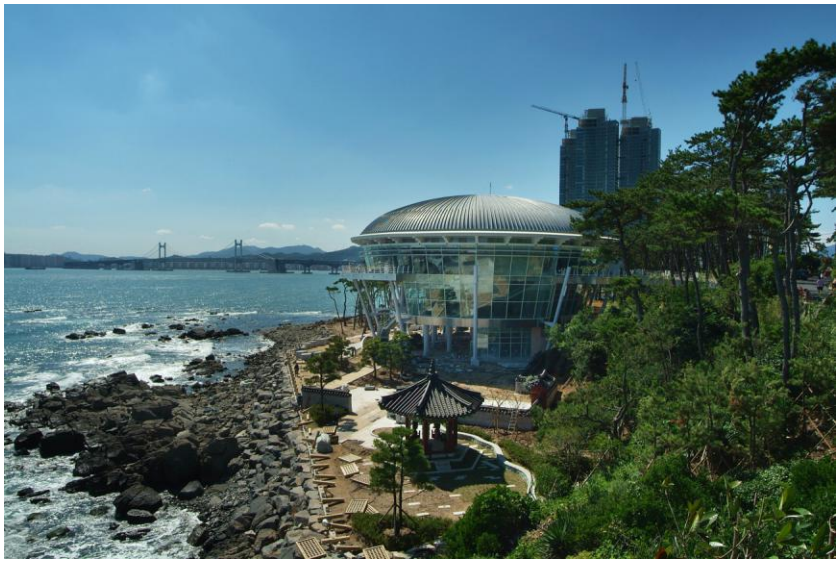
경주 독락당은 회재(晦齋) 이언적 선생의 제사를 받드는 옥산서원 뒤편에 있는 사랑채이다. 이언적(1491~1553) 선생이 벼슬을 그만 두고 고향에 돌아온 뒤에 거처한 유서 깊은 건물로서 보물 413호의 문화재이기도 하다. 계정은 독락당 뒤쪽의 냇가에 있는 정자로서 자연에 융합하려는 공간성을 드러내 준다고 하겠다. 개울가의 초석 위에 바위에 생김에 따라 각기 길이가 다른 누하주를 세우고 바닥을 마루와 방으로 구성하였다. 3칸, 1칸의 평면에 계곡 쪽으로 쪽마루를 내고 계자난간을 설치하여 경관을 즐기도록 하였다. 홑처마 맞배지붕의 소박한 규모이지만 가구수법과 뛰어난 위치적 특성은 당대의 건축술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계정의 마루에 앉아 맑은 물에 비친 너럭바위와 숲을 내려다보는 멋도 일품이지만 계곡 건너편에서 바라보는 계정은 더 아름답다. 계곡의 암반 위에 축대를 쌓고 지은 정자는 좌·우측 나무들에 휩싸여 신선이 사는 선계(仙界)처럼 보인다. 계곡 쪽 석축에 아궁이를 내어 온돌방에서 겨울에도 지낼 수 있도록 하였다. 계곡에는 너른 반석들이 독특한 아름다움을 연출하고 폭포까지 있는데, 회재 선생은 계정자리를 관어대(觀魚臺)라 하고 작은 폭포를 탁영대(濯纓臺)라 이름 짓고 낙향한 선비의 생활을 즐겼다.

2절 현재의 시대적 가치로 재해석된 현대건축 사례

정자건축을 현대적 시대가치로 재해석했을 경우 대표적인 디자인으로 잘 표현한 예를 정확히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자건축 자체는 요즘 모정이라고 흔히 불리는 정자라 하여 지금도 농촌 마을 입구에 지어지고 있다. 이러한 모정과 같은 정자가 올바르게 해석된 현대디자인 사례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전통적 의미의 정자공간에서 나타나는 개념이나 디자인 요소는 오히려 장소성이나, 개방성, 경계의 모호성 등의 추상적 요인들인데 이러한 사례가 잘 반영된 예를 찾기 또한 힘들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정자의 유형은 가지되, 공간적 성격이 유사한 건물이 있다면 누리마루(APEC 정상회의장)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누리마루는 온 세상을 의미하는 '누리'와 지도자 혹은 정상이란 뜻이 담긴 '마루'를 조합해 만든 합성어로 '온 세상의 정상'이라는 뜻이다. 전체면적은 1만



〈그림48〉 〈누리마루〉

9772㎡, 연면적 2992㎡이며, 지상 3층 규모에 높이는 24m이다. 누리마루는 부산의 일신설계(회장 이용흠)에 의해 설계되었고, 2005년 9월에 완공되어 그해 11월에 대한민국 부산에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아시아 태평양 연안 21개국 정상들이 참가하는 '2005년 APEC 정상회의' 가 성공리에 마쳤다. 작가의 변을 살펴보면, "녹음을 병풍으로 두른 동백섬(부지)의 절경은 보는 이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이런 천혜의 절경 속에 APEC 정상회의장이라는 다소 특수 용도의 건축물을 반영하기 위해 디자인 방향을 크게 3가지로 정리하였다. 자연 훼손을 최소화할 것, 경호, 의전, 자연 재해 등을 고려한 안전성을 확보할 것,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반영할 것" 등이다.(그림48 참조)

① 정자문화의 기본성격

이 건물을 설계한 건축가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장의 공간이 한국의 정자 공간의 성격과 일치한다는 디자인 개념으로 정하고 설계를 진행하였다. 이는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 회의를 한다는데 주목하고, 정자 공간을 국사와 인생에 대한 고담준론을 펼치며 교류하던 선비들의 모임공간으로 해석하였다. 모임과 회의를 주 기능으로 하는 건축계획의 공간개념을 현대의 강당이나 극장계획이 아닌, 전통적 성격이 강한 교류문화의 장으로 시각을 돌린 점이 독특하며 결국 정자의 디자인적 가치를 잘 활용한 예가 되겠다.

② 장소성

국제회의장이 위치한 동백섬의 경관을 이용한 점이 정자문화의 미학적 가치를 잘 표현하였다. 즉 동백섬 자체의 울창한 삼림은 물론 시원한 바닷가의 경관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대지를 잡은 것이 정자의 입지조건과 맞아 떨어진다. 정자에서 선비들이 잠깐 머물러 풍류를 즐기고 주변 경치를 완상하고 떠나는 것이 주목적이라면, 누리마루는 불과 2시간 30분간 정상들 간의 2차 정상회담만을 위해 세워졌을지라도, 회의 중이나 회의 전후에 회의장 남쪽의 바다와 북쪽의 송림을 감상하면서, 건축이 자연 속에 파묻혀 있는 동시에 하늘에 떠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즉 회의장을 이용한 정상들은 선비들이 그전에 그랬듯이 정자와 같은 곳에 왔다가 즐기고 떠난 셈이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좋은 공간은 건축물을 두기보다는 친환경적 혹은 자연보호 측면에서 비워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역으로 건축이 서있는 그 레벨에서의 절경의 공간임을 느끼지 못하다가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그 공간이 절경이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그러한 결정점을 찾는 것이 장소성의 미학이며 바로 정자가 서 있는 입지의 조건인 것이다. 이

곳이 절경임을 일깨워 준 것이 바로 누리마루이다.

③ 개방성과 바라봄의 건축

누리마루의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은 유리로 차단되어 있다. 정자에서 보듯이 반외부공간이 아닌 내부와 외부가 명확히 단절된 것이다. 하지만 근대의 기술혁명으로 이룩해 놓은 유리라는 신 재료는 폐쇄적 벽체를 투명하게 만들어 차단된 막을 해체하고 시각적으로 외부와 소통을 하게 된 것이다. 누리마루는 어느 방향에서든 자연 한가운데 있다는 느낌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내부공간을 타원형으로 계획하고 3개 층 모두를 투명유리로 하였다. 여기서의 소통은 시각적일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뚫려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회의장의 바다 쪽으로 설치된 테라스는 정자의 계자난간이 있는 처마 밑 공간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재현하였다. 외부공간이지만 비바람을 맞지 않고 바다의 산뜻한 향기를 맡을 수 있고 멀리 보이는 수평선을 감상하되, 언제든지 내부공간으로 연결되는 전이공간이 표현된 것이다. 주출입구의 양쪽에 테라스가 있고 계단이 올라가는 부분의 일부만 제외하고 전부가 테라스로 둘러싸여있는 것 또한 특징이다.(그림49 참조)

〈그림49〉〈누리마루〉 테라스

정자에서 보이는 건축을 바라봄이 아닌, 건축에서 바라봄의 건축이라는 디자인원리 역시 개방성의 원리와 함께 설명해도 큰 지장은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현대건축의 특성상 전통 정자건축에서 보이는 바라봄의 미학이 완벽하게 구현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옛 정자에서는 풍류와 유희를 즐겨서 바라봄의 중요성이 중요했다. 그러나 전문회의장이라는 기능으로 인해 공간의 시선 집중력이 내부공간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바깥 풍광으로의 시선 확산 또한 지나쳐 버릴 수 없는 주요한 요소이다. 푸른 하늘과 끝없는 바다의 모습,

그리고 소나무 숲의 장려함으로 인해 회의장 안에서 바깥으로 바라보는 행위는 정자의 바라봄의 미학을 현대적으로 재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④ 자연 · 인간 · 공간의 완전한 결합체

정자에서 나타나는 자연과 인간, 그리고 그 사이의 공간이 서로 완전한 결합체를 이루는 특징을 실제 정자건축을 짓지 않는 이상 현대건축에서 적극적으로 완벽하게 실현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단지 건축물의 외관과 비교하여 주변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등의 소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연과의 연계 등을 논할 수는 있겠다. 하늘에서 본 누리마루의 둥근 지붕의 선은 동백섬의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고 안기듯 어울린다.(그림50 참조) 즉 외형을 동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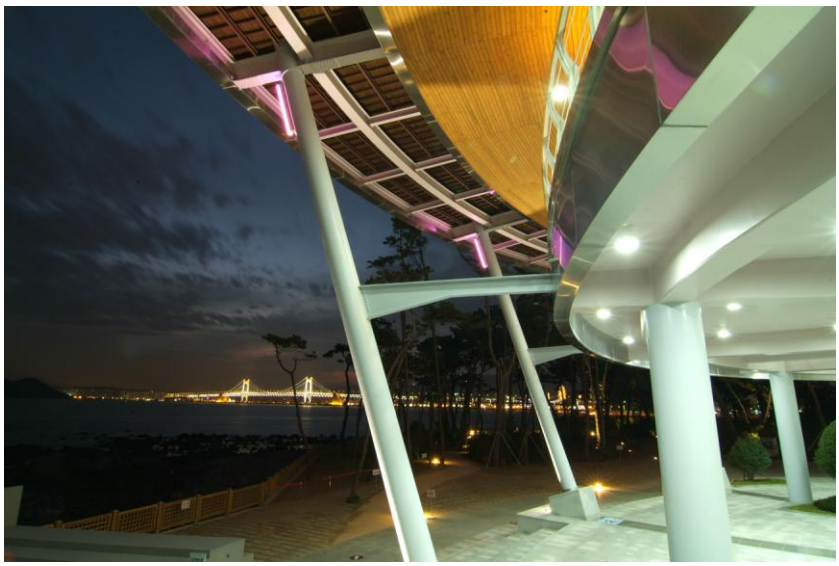
〈그림50〉〈누리마루〉 조감사진

〈그림51〉〈누리마루〉 입면

섬의 능선을 닮은 둥근 지붕으로 처리하여 전체적으로 부지와 조화가 되고자

하였다. 타원형에 가까운 지붕의 아담하고 단아한 모습이 마치 초가지붕과 유사한 이미지이다. 기둥들의 수직부재는 주변 나무들의 모습과 닮았다. 지상에서는 실제 기존의 소나무와 필로티 기둥이 어울려 묘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림51 참조) 누리마루의 곡선의 지붕은 정자의 옛 기와지붕이나 초가지붕의 질감 및 부피감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듯하다. 동시에 사선기둥의 도입으로 인해 발생한 역동성의 추상은 바다라는 생동적 존재의 또 다른 표현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⑤ 건축물 내부공간의 전통적 요소의 표현



〈그림52〉〈누리마루〉정상회담장

〈그림53〉〈누리마루〉필로티

그밖에 옛 건축요소인 석굴암의 천장, 보와 공포(栱包)의 이미지, 대청마루,

벽 등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추상화시킨 요소를 내부공간에 표현하였다. 내부 한가운데 정상회의장이 있다. 내부 가장 안쪽에 있는 정상회의장은 21개의 좌석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7개씩 3그룹이 있다. 정상회의장은 원형인데 비하여 건물 외벽 선은 타원형이다.(그림52 참조) 이런 경우 회의장과 외벽선 사이에 면적이 불균등하게 배치되는 불합리성이 나타난다. 회의장과 외벽선이 동시에 원형일 경우, 면적이 전후좌우 균등하게 배열되어 답답한 감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원형과 타원형이 만나면서 생기는 여백을 자연스러운 운동감을 부여하여 흐름을 강조하는 공간으로 발전시켰다. 3층 로비 좌측에 있는 계단실을 따라 내려가면 2층 오른쪽에 있는 오찬장에 도달. 2층 테라스의 계단을 타고 내려오면 텅 빈 1층 필로티이다.(그림53 참조) 남쪽에 있는 2층의 테라스는 오찬장으로 향하는 두 개의 출입구, 그 위쪽은 정상회의장 상부이며 동시통역실이 있는 곳이다. 3층 천장은 석굴암의 그것을 추상화시킨 것이다. 이 건축물의 곳곳에는 우리의 단청이 그대로 재현된 것도 있고 모양새만 추상화된 것도 있다. 기둥을 12개씩 3열로 설치한 것은 12지신상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3절 정자문화가 현대디자인에 발현되기 위한 디자인 요소

① 공간의 불확정성과 경계의 해체

정자의 가장 안쪽에 있는 온돌방, 방 주위의 마루 공간, 처마 밑 공간, 즉 난간이 달린 툇마루공간, 그리고 정자 앞 비어있는 작은 마당공간, 주변의 나무와 꽃들, 멀리 보이는 산세와 계곡, 계류, 바다. 이들 각각의 단위공간은 서로 매개 역할을 하며 정자 주변경관을 이룬다. 여기서 정자의 건축공간은 지붕과 바닥으로 구성되어 내부공간도 아니고 외부공간도 아닌 모호한 성격의 전이공간이다. 또한 온돌방이 있더라도 들어열개문을 통해 언제든지 마루를 통해 바깥 경치를 감상하는 등 자연과의 소통을 꾀하여, 그 폐쇄된 물리적인 경계는 언제든지 동시에 개방된 정신적 경계를 이룬다. 이와 같이 정자의 방과 마루의 공간개념은 불확정 특징을 보여준다. 즉 공간과 공간의 이러한 전이적 성격, 모호한 성격, 상대적인 관계성, 탈경계성을 가지고 있다. 결국 정자에서 보이는 건축공간은 물질적인 요소에서 벗어나 외부 경관과 내부공간의 경계가 없는 불확정적 공간이 된다.

② 공간의 확장가변성과 내외부 공간의 연속성

정자의 건축공간은 경계가 모호하다. 주변 자연 속에 파묻혀 사용자들의 정신세계를 구현함이 더 크기 때문에 건축물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았다. 따라서

물리적 경계인 벽체를 없애고 자연과 더 가까워지려는 의도로 기둥들로만 구성하여 외부영역으로 최대로 확산될 수 있는 구성을 하였다. 여기서 경계의 확장성이란 공간 규모에 따라 좌우되는 성질 이상의 것이다. 채워진 곳과 상대적인 비례로 나타나는 빈 공간과 같은 여백은 일종의 완충과 확장이라는 역할을 하며, 공간의 확장을 꾀한다. 물리적으로 감싸여진 경계와 시각적으로 한정된 공간의 경계 사이에 있는 여백 안에 처마공간과 같은 완충공간이 있다. 공간의 확장 가변성은 융통성과 암시성을 동시에 지니는 공간의 특성으로 경계를 확장함으로써 물리적 경계와 시각적 경계를 넘나드는 상대적 여백을 생성하여 공간의 물리적 확장뿐 아니라 지각의 무한경계를 인식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낸다.

③ 공간의 무위성

허(虛를) 통한 무위성은 우리 선조들이 가지고 있던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고자 함으로써 나타나는 비물질적 특성이다. 인위적인 문화가 없으며 자연그대로의 텅 빈 상태를 말을 하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텅 빈 상태란 단지 물질이 비어 있음으로 구현되는 것보다 생명의 기운인 기가 차있는 허를 말한다. 이는 시각적으로 비어 있는 공간이 관념적으로 기가 가득 찬 함축되고 밀도가 높은 공간을 말한다. 즉 다양한 행위와 기능성을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다. 과거의 사대부들은 무위라는 개념을 건축에 투영함으로써 노자가 말하는 자연그대로의 텅 빈 상태, 즉 근원인 무(無)에 이른 삶을 구현하고자 했다. 정자는 이러한 비움의 공간 혹은 무의의 공간을 즐겨 구성했다.

④ 공간의 비물질화

정자의 건축은 중심성을 강조하지 않는다. 주변의 경관 속에 파묻힌 정자는 오직 경관의 한 구성원일 뿐이다. 건축공간에서 비물질화란 공간의 경계에 대한 주관적인 감각에 의해서 파악될 수 있다. 즉 물질적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간을 모호하게 하여 공간을 연속적, 동시적, 상대적으로 지각하게 하는 개념을 말한다. 공간에서 비물질화된 경계는 구조에서 분화된 자유로운 벽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근대이후에는 구조에서 분화된 유리벽의 투명한 성질에 의한 공간의 연속성으로 표현되었으나, 현대에는 재료의 물질적인 성질 외에도 테크놀로지와 결합하여 연속성과 상호작용하는 공간으로 작용하였다. 가령 건축의 경량화 경향이 있다. 이는 지금까지 건축의 절대적 원리로 파악했던 영원성 혹은 영웅성을 거부하고, 지반에 뿌리박음을 피하여 탈중력성, 가벼움을 표현하였다. 투명성은 공간간의 동시성과 상호관입, 상호침투성을 통해 비물질화하였고, 중성화를 통해 중심성을 제거하고 불확정성 경향의 건축을 지향하였다. 이러한 건축적 경향은 정자에서 보이는 공간의 불확정성,

확장가변성, 무위성과 일치되는 공간요소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현대 디자인으로서 발현되기 주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미지목록 *보고서 수록 이미지의 출처와 유물 혹은 유적지의 소장기관 및 지역 작성 부탁드립니다. 본문내에서는 이미지번호와 이미지제목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no.	이미지제목	이미지출처	소장기관
1	용도서(龍圖墅)	산수간에 집을 짓고	오사카시립도서관
2	구문원(龜文園)	산수간에 집을 짓고	오사카시립도서관
3	인문석(人文石)	조선의 문화공간3	강원도 화천
4	안견,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부분		일본 덴리대학
5	이유신, 〈행정추상도(杏亭秋賞圖)〉	산수간에 집을 짓고	서울 박주환 소장
6	이인문, 〈송하담소도(松下談笑圖)〉		국립중앙박물관
7	이인문, 〈누각아집도(樓閣雅集圖)〉	산수간에 집을 짓고	국립중앙박물관
8	이인문, 〈연정수업(蓮亭授業)〉		국립중앙박물관
9	김홍도, 〈군현도(群賢圖)〉		개인소장
10	김홍도, 〈총석정도(叢石亭圖)〉		개인소장
11	정선, 〈총석정(叢石亭)〉		국립중앙박물관
12	윤두서, 〈송하관폭도(松下觀瀑圖〉		윤영선 소장
13	정선, 〈압구정(鴨鷗亭)〉	조선의 문화공간1	간송미술관
14	〈악양정(岳陽亭)〉		경남 하동
15	〈사은정(四隱亭)〉		경기도 용인
16	강세황, 〈서사정(逝斯亭)〉	조선의 문화공간2	국립중앙박물관
17	김정희, 〈세한도(歲寒圖)〉		호암미술관
18	김홍도, 〈단원도(檀園圖)〉	조선의 문화공간1	개인소장
19	〈활래정(活來亭)〉		강원도 강릉
20	〈포석정(鮑石亭)〉		경북 경주
21	김이혁, 〈고산구곡담총도(高山九曲潭摠〉	산수간에 집을 짓고	개인소장
22	〈농월정(弄月亭)〉		경남 함양
23	〈거연정(居然亭)〉		경남 함양
24	〈양신정(養神亭)〉		충북 옥천
25	강희언, 〈사인삼경도(士人三景道)〉	산수간에 집을 짓고	서울 개인소장
26	〈경체정(景棣亭)〉		경북 봉화
27	〈효종어제희우정시회도(孝宗御製喜雨亭詩會圖)〉	조선의 문화공간1	홍익대박물관
28	〈계정(溪亭)〉		경북 경주
29	작자미상, 〈장주묘암도(漳州筎菴圖)〉	산수간에 집을 짓고	개인소정
30	이한철, 〈세시풍속도(歲時風俗圖〉	산수간에 집을 짓고	동아대박물관
31	모정. 대전 중구 무수동		대전 중구 무수동
32	〈피향정(披香亭)〉		전북 정읍
33	〈도산서원(陶山書院〉		경북 안동
34	김홍도, 〈사인초상(士人肖像)〉	산수간에 집을 짓고	평양조선미술박물관
35	방연재, 〈귀거래도(歸去來圖)〉	산수간에 집을 짓고	개인소장
36	〈이화원(頤和園)〉		중국 북경
37	〈이화원〉, 〈곽여정(廓如亭)〉		중국 북경
38	〈존덕정(尊德亭)〉		서울 창덕궁
39	〈졸정원(拙政園)〉		중국 소주
40	〈망사원(網獅園)〉, 〈월도풍래정(月到風來亭)		중국 소주
41	졸정원, 〈천천정(天泉亭)〉		중국 소주
42	〈향원정(香遠亭)〉		서울 경복궁
43	〈겐로쿠엔(兼六園)〉, 〈유가오테(夕顔亭)〉		일본 이시카와(石川)
44	〈겐로쿠엔(兼六園)〉, 〈시구레테이(時雨亭)〉 - 다실		일본 이시카와(石川)
45	〈겐로쿠엔(兼六園)〉, 〈시구레테이(時雨亭)〉 - 다실정원		일본 이시카와(石川)
46	〈코라쿠엔(後樂園)〉의 〈엔요테이(延養亭)〉 - 다실		일본 오까야마(岡山)
47	〈부용정(芙蓉亭)〉		서울 창덕궁
48	〈누리마루〉 전경		부산
49	〈누리마루〉 테라스		부산

50	〈누리마루〉 조감사진		부산
51	〈누리마루〉 입면		부산
52	〈누리마루〉 정상회담장		부산
53	〈누리마루〉 필로티		부산